Vol. 606
2021. 05.31-06.06

공감

gonggam.korea.kr
스캔하면 〈공감〉 누리집을 만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포괄적 동맹’ 시대로

P4G 더 푸르른 지구를 향한 힘찬 발걸음_20
한미 정상회담 한미관계 ‘포괄적 동맹’으로_06
공공주택 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가보니_50
문재인정부 4년 내게 찾아온 변화 ⓫ 안전한 스쿨존, 행복한 아이들_44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서 ‘마스크 해방’_38

국가보훈처

2021년 제25회 보훈콘텐츠 공모전

영상·디자인·문예



공모분야

- **영상부문** – 모든형식의 다양한 영상
  (1인방송,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 **디자인부문** – 소설툰, 카드뉴스, 포스터*
  *포스터는 초등부에 한정
- **문예부문** – 시(추모헌시), 수필(보훈수기)

공모주제

-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분들에 대한 감사, 그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내용
-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
- 6 · 25전쟁, 서해수호 등 호국영웅들의 국가수호정신
- 2 · 28민주운동, 3 · 8민주의거, 3 · 15의거, 4 · 19혁명 및 5 · 18 민주화운동 등 자유와 민주정신
-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등 소방 · 경찰 등의 공익수호 정신
-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국립묘지 등 보훈현장 탐방 소감
- 독립 · 호국 · 민주유공자의 무용담, 전공담, 전우애(애국가 부르기 등) 등을 담은 내용이나 유공자 본인 또는 주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훈이야기
- 그 외 보훈 주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애국가 부르기 등)

접수기간

2021년 5월 13일(목) ~ 8월 31일(화)

※ 참신한 질문 및 시상식 일정은 추후 공모전 홈페이지로 공지

참가구분

- 일반부(성인 · 대학생), 중 · 고등부, 초등부

접수방법

① 공모전 홈페이지 (보훈콘텐츠.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검색창에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입력하여 접속

② 우편접수
※ 고령, 장애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대상 및 수기로 작성한 경우

③ 접수처
(우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42-8 4층 (양재동, 미래빌딩)
2021년 제25회 보훈콘텐츠 공모전 운영사무국 (주)탑커뮤니케이션

시상내역

총상금 5,330만원 / 시상 총 83팀
※대상 3팀, 최우수상 11팀, 우수상 22팀, 장려상 47팀

문의사항

2021년 제25회 보훈콘텐츠 공모전 운영사무국
(주)탑커뮤니케이션 1666-3092
카카오톡ID : @보훈콘텐츠
인스타그램 : @bohun_contest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판단 보류

● 나태주 시인
풀꽃 시인. 한국시인협회장. 100여 권의 문학 서적을
발간했으며 충남 공주에서 풀꽃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류는 언제부터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또 그렇게 살았을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둘로 나눠 그 가운데 한곳에 자기를 가두는 방법. 이쪽이냐 저쪽이냐, 너냐 나냐, 틀린 것이냐 맞는 것이냐. 어느 쪽이든 편을 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흑백논리이고 극심한 이념 대결이다.

도무지 상대편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내 편의 주장이나 색깔과 다르면 아예 뭉개 버린다. 독단으로 치달아 중간 지대를 지워버린다. 만약 그 부분에서 어정거리는 자가 있다면 회색분자로 몰아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끼워주지 않는다. 오랫동안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너의 선명성을 보이라고 윽박지른다. 이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다 보니 융통성이 사라지고 삶의 형태가 외통수로 간다. 일방통행,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생각과 삶이 경직된다. 독선이 난무한다. 독선이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나 행동들이다.

예전에는 그런대로 진실과 거짓이 제자리를 지켜줬고 진실이 더 큰 힘을 지녔다. 몽니를 부리던 거짓도 때로는 슬쩍 자리를 비켜주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이 진위(眞僞)에 있는 게 아니라 호오(好惡)에 있는 것 같다.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나한테 좋은가 싫은가부터 따진다.

자기한테 좋은 것이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도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는 추세다. 이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다. 그러다 보니 사회 현상이나 삶이 온통 흥밋거리 위주로 삐딱하게 흘러간다. 생각이나 삶이 경박으로 기운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관심 있는 일, 재미있는 것만 골라서 본다고 한다.

인터넷에 나도는 여러 게시물을 봐도 그렇다. 게시물 아래에 의견란이 있다. 좋아요, 나빠요, 딱 두 가지의 반응을 묻는다. 제3의 의견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일들로 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고 각박해지는 것이리라.

하지만 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나 삶의 태도를 선호하지 않는다.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고서도 편을 가르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면 누구라도 좋다고 여긴다. 이념에 대해서도 낯가림이 없다. 보수든 진보든 그런 개념보다 사람이 기준이고 사랑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뿐이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터.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두고 판단을 미룬 채 살고 있다. 아니, 살고 싶다.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이 얼마나 되고 내가 신념하는 것이 과연 옳기나 하단 말인가! 아직도 나는 그 무엇도 확신하지 못한다. 판단 보류.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더듬더듬 나의 인생을 나갈 것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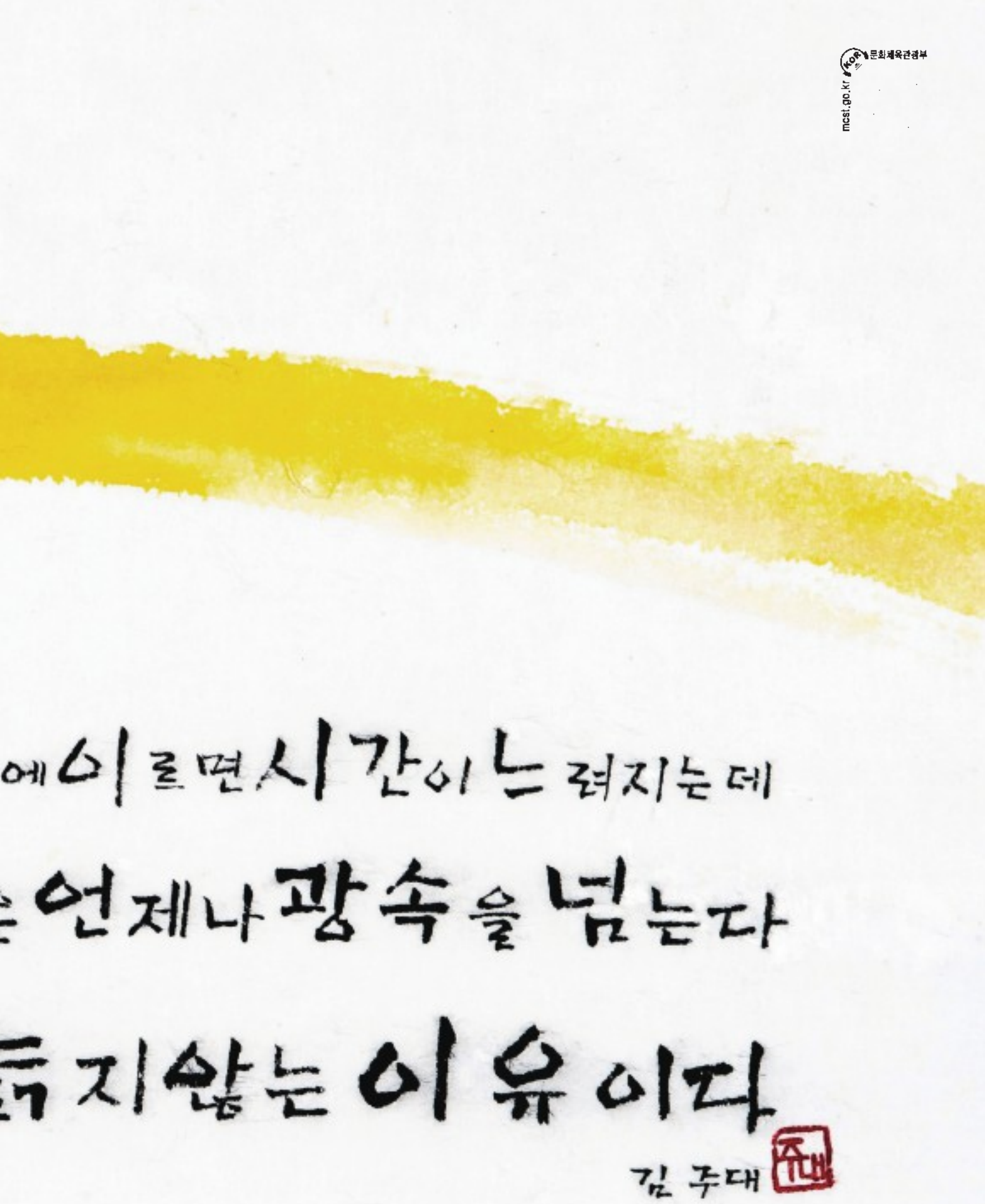


빛의 속도

우리의 그리움

우리가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김주대 시인** 〈창작과비평〉을 통해 작품 활동 시작. 시집 〈그리움의 넓이〉 등 펴냄.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34



나태주의 '풀꽃 편지'

01 판단 보류

02 **공감 글판**

한미 정상회담

06 한미관계 '포괄적 동맹'으로

08 족쇄 풀린 미사일 주권… 우주 개발 큰 호재

10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성명 인정" 대북 대화 물꼬

12 4대 그룹 44조 원 투자… 안보 이어 '경제동맹'

14 한국 생산능력+미국 기술력, 백신 허브가 된다

16 백신 파트너십, 지구촌 건강 기여로 이어지길

홍화정 만화_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㉑

18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집_ P4G, 더 푸르른 지구를 향한 힘찬 발걸음

22 지속 가능한 ○○를 위하여

23 기후위기 극복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24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

25 지속 가능한 농업과 풍족한 먹거리

26 도시, 민관 손잡고 녹색 미래 꿈꾸다

27 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쓰레기 0' 사회로

28 2050 탄소중립 향한 국가 의지 공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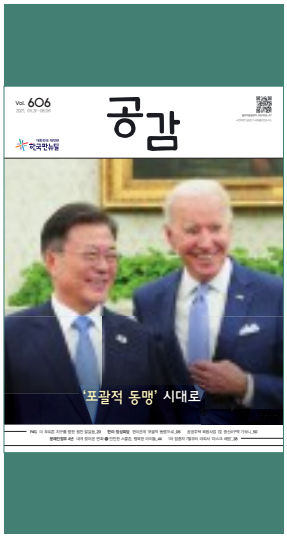
30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가 겪어야 살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34 내 집에 한 그루 심으면 숲에 또 한 그루

공감

훈민정음체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제호입니다.

Vol. 606
2021. 05.31–06.06



표지이야기

'포괄적 동맹' 시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대북 정책, 코로나19 백신 협력,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등 다방면의 현안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안보는 물론이고 백신, 반도체, 원자력, 우주탐사, 기후변화 등 포괄적 측면에서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좁은 틀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44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54

힘내라 대한민국

38 7월부터 50~59세 · 수능 수험생 등 접종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마스크 해방'

42 예방접종률 77%, 요양병원에 돌아온 일상

문재인정부 4년-내게 찾아온 변화 ⓫
국민안전-국민생명지키기

44 안전한 스쿨존, 행복한 아이들

48 한 걸음 더 다가온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

주거안정 대책

50 20년 숙원사업 공공주도 모델로 '물꼬'
주민들 "빠른 사업추진과 투명성 기대"

5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올해도 841건 추진

건강한 삶

55 피로한 눈 '이것' 먹고 풀어보자

연재_ 디지털은 콘텐츠다 ❾

56 글쓰기를 잘하면 무엇이 좋은가?

연재_ 신한류 돋보기 ⓲

58 'K, K, K…' 유튜브에 휘몰아친 한류 열풍

연재_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작가 ⓬
미술가 이우환

60 단순함에 깃든 심오한 철학적 사유

연재_ 공감 우리말 ⓫

62 '죽기 전에 나도 한 번은' 나빌레라

참여공감

64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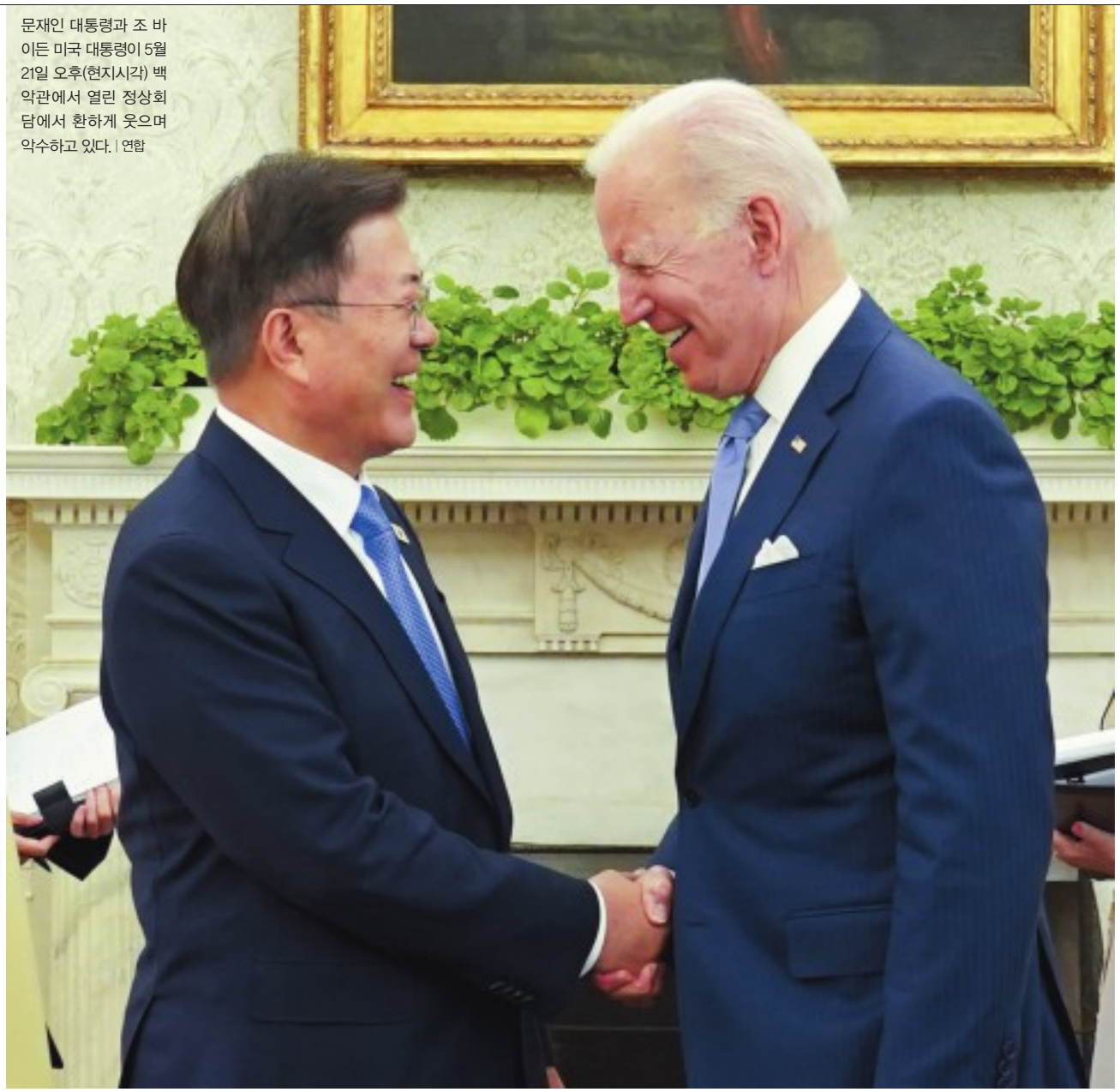


발행일 2021. 05.3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황희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팩컴코리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 연합

한/미/관/계
'포괄적 동맹'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은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

주요 내용과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5월 23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5월 2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북정책, 코로나19 백신 협력,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미 공조를 확인하고 미국과 백신 협력으로 백신 생산 허브 구축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의견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받아 균형을 맞췄다. 우리나라는 대북정책과 미사일지침 등 한반도 문제, 코로나19 백신 협력에서 성과를 냈고 미국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미국이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를 묶어 우리나라가 반도체·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에 동참함으로써 한미 간 동맹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북미 협상의 연속성과 북미 대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북한과 협상하는 '대북특별대표'로 전격 임명했다. 인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북한인권대사보다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해 북한에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낸 것이다.

기후변화·백신·반도체 등까지 협력 확장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다. 앞으로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군사동맹을 넘어 세계적 사안인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약한 미사일지침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42년 만에 종료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사일과 로켓 개발 주권을 확보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는 등 양국 간 백신 공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세대(6G) 통신, 해외 원전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생산 역량을 더해 백신 생산 확대에 협력하는 백신 파트너십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는 한편 국내용 백신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백신 제조사 모더나가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나아가 삼성이 생산하는 백신을 국내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55만 명의 국군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것 역시 성과다.

삼성전자·SK·현대차·LG 등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총 394억 달러(약 44조 원)를 투자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이찬영 기자

한미 공동성명 주요 내용

한미 동맹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북외교 •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
기후 위기	• 해외 석탄발전소 신규 공적금융지원 중단
경제	• 5G,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회복력 협력 • 국제 원전사업 공동 참여
아시아	• 쿼드 등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 인식 •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 미얀마 군경의 폭력 즉각 중단
코로나19	•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백신 공급 대폭 확대 • 세계보건기구(WHO) 개혁
인권	•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 여성 학대 종식 • 아시안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 규탄

족쇄 풀린 미사일 주권… 우주 개발 큰 호재



한미동맹 강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다소 소원했던 한미동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졌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였던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완전 종료돼 미사일 주권이 회복됐고 한미동맹의 하나로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돼 우리나라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서 해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1979년 9월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하로 제한했다. 미사일지침은 사거리·탄두중량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완화돼 왔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 개정됐다. 2017년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로 제한하되 탄두중량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에는 민간용 로켓의 경우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렸다.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종료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사거리 제한과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제한 규제까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우주 개발 기술 확보 초석 마련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이론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거리 1000~3000㎞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사거리 1000㎞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2000㎞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로켓 개발 등 우주 군사력 관련 기술 확보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2020년 민간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졌고 이번에 군사용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일부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해제가 중국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우리나라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미국은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사일지침 해제가 주변국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지침은 주변국의 영향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 행정부는 상당히 한미동맹을 중시한다. 우리의 국가적 역량이나 위상, 그리고 우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 제공을 약속한 것도 우리 정부를 배려했다는 평가다. 백신을 먼저 받고 나중에 되갚는 '백신 스와프'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공공의료체계가 탄탄한 우리나라를 특별대우할 명분이 부족했다고 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다는 게 미측 설명이었다"며 "한국군 지원을 명분으로 1차적으로 지원한 건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배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사일지침 변천사

1979년 9월	박정희정부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넘는 탄도미사일 개발하지 않겠다"
2001년 1월	김대중정부	1차 개정 ▶ "사거리 제한 300㎞로"
2012년 10월	이명박정부	2차 개정 ▶ "사거리 제한 800㎞로"
2017년 9월	문재인정부	3차 개정 ▶ "모든 미사일에 탄두중량 제한 없앰"
2020년 7월		4차 개정 ▶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 로켓 허용"
2021년 5월		지침 폐지로 모든 제한 사라짐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체 접속 및 분리충격 시험 모습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이론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로켓 개발 등 우주 군사력 관련 기술 확보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한중 관계 고려 '쿼드 참여' 안 꺼내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해 하는 문제도 언급됐으나 중국이 이해해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의용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은 같은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중국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중국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으나 4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즉각적이고 거친 반응에 비해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뒤인 5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

이찬영 기자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성명 인정” 대북 대화 물꼬



남북관계

“한미 정상 간 공동합의 과정에서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실용적 해결,
우리 정부의 능동적 역할,
동맹에 대한 존중 등의 정신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교착상태였던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 정상이 약속한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공석이었던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한반도통인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임명한 것은 적극적인 북미 대화 의지로 볼 수 있다. 한국계인 성 김은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대북협상에도 참여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외교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한반도통 성 김, 대북특별대표 깜짝 지명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한다”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우리 모두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다가가기로 했다”며 “대북 전략과 접근에 있어서 항상 한국을 긴밀하게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누리소통망(SNS)에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는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선물이었다”며 “그동안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미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교착상태인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의 판문점선언 존중은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고 기존 남북 간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교류가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과 완전한 비핵화 외에도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전환 등 다양한 남북협력 방안들이 담겨 있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을 명시한 것은 남북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 연합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우리 정부에 일정한 독자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톱다운(위에서 결정해 실무진에 통보하는 방식) 식의 협상을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소외됐던 데 반해 바이든 행정부는 남북관계에 자율성을 인정하고 북핵문제 해결 여건과 대화 분위기부터 조성하겠다는 기조가 엿보인다.

"남북미 관계개선 여건 충분히 마련"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를 쓴 모습도 보인다.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인권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한 문장으로 엮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5월 23일(현지시각)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북한도 그걸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유엔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행동들에 계속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유지하지만 외교적으로 이것(관여)을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에 신중하고 조정된 접근법 위에서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가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5월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정상 간 공동합의 과정에서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실용적 해결, 우리 정부의 능동적 역할, 동맹에 대한 존중 등의 정신이 분명해졌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단절된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으로서도 내심 기대했던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기초한 대화 접근 가능성도 분명해졌다"며 "북미대화 의지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대북특별대표의 임명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남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충분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미국이 평양을 노크했을 때 거부했던 것과 달리 최근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설명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거부하지는 않았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북한이 모종의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찬영 기자

4대 그룹 44조 원 투자… 안보 이어 '경제동맹'

경제협력

한미 두 나라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배터리·전기차·차세대 이동통신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은 5월 2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총 394억 달러(약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구축하는 데 모두 170억 달러(19조 91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10억 달러(1조 1230억 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를 실리콘밸리에 설립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GM, 포드와 손잡고 140억 달러(15조 722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추진한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총 74억 달러(8조 3102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하고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춘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오늘 논의가 발전돼 두 나라 사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반도체·배터리·자동차는 물론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해 전 업종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호명하며 감사를 표시했다.

미국과 이해관계 맞아 '윈윈 전략'

이번 한미 경제협력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중국과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잡으려는 미국 정책에 우리 기업들이 동참하는 형식이지만 우리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위가 강화되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평가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 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개방형 무선접속망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6세대(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전략 핵심 원료, 의약품 등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 대통령 방미 성과 합동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대등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 격상됐다"며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과 백신·에너지·첨단산업 협력으로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양국이 상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중소·중견협력사의 수출과 동반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업간 연구·개발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져 우리 기술의 고도화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 미국 신규 투자 규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각 회사

SAMSUNG	170억 달러	삼성전자 최신 파운드리 공장 증설
HYUNDAI MOTOR GROUP	74억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2025년까지)
LG	100억	LG에너지솔루션, GM과 합작해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 건설 등(2025년까지)
SK	50억	SK이노베이션, 포드와 합작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40억달러). SK하이닉스, 실리콘밸리에 연구개발센터 설립(10억달러)

이번 한미 경제협력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중국과 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잡으려는 미국 정책에 우리 기업들이 동참하는 형식이지만
우리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위가 강화되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미국을 향한 대규모 투자가 중국 견제 동참으로 해석돼 중국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승욱 장관은 이에 대해 "양국의 이번 논의는 코로나19 극복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글로벌 의제로 특정국과 관련되거나 특정국을 배제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중국은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으로 주요한 경협 파트너인 만큼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겨냥해 대중국 투자를 계속해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정부, 미국에 요청

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문승욱 장관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직후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과 별도 면담을 했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 미 상무장관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미국은 지금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여러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지원이 잘 진행되도록 산업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경제동맹에 대해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 23일 논평에서 "양국 간 반도체 투자와 첨단기술 협력, 공급망 협력 강화 약속은 매우 값진 성과"라며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동맹으로 나가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배터리·전략 핵심 원료, 의약품 등의 공급망 회복은 물론 신흥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내어 "첨단 제조 분야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값진 성과"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제1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찬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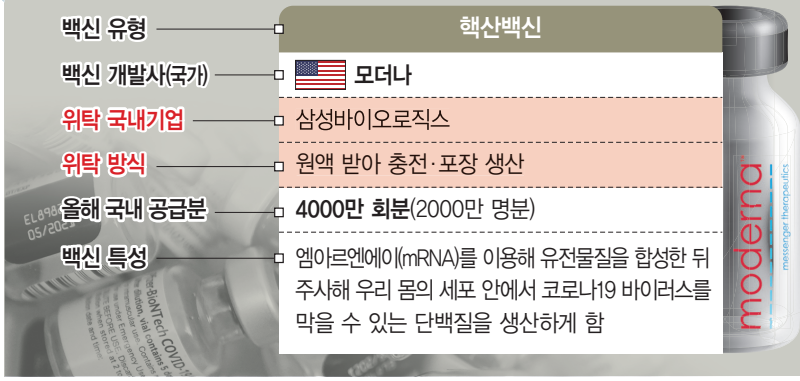
한국 생산능력+미국 기술력, 백신 허브가 된다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백신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생산 역량, 인적자원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국내 위탁생산 코로나19 백신 현황

백신 유형	핵산백신
백신 개발사(국가)	모더나
위탁 국내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 방식	원액 받아 충전·포장 생산
올해 국내 공급분	**4000만 회분**(2000만 명분)
백신 특성	엠아르엔에이(mRNA)를 이용해 유전물질을 합성한 뒤 주사해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함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백신 제조·생산 역량과 미국의 백신 기술, 원부자재 공급 능력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세계적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백신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생산 역량, 인적자원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인 5월 22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해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어 3분기부터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최종 형태로 만드는 '완제(병입) 충전'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백신 수억 회분은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유형 네 가지 중 mRNA(전령 메신저 리보핵산)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 개발 플랫폼으로 기술 난도가 높은 의료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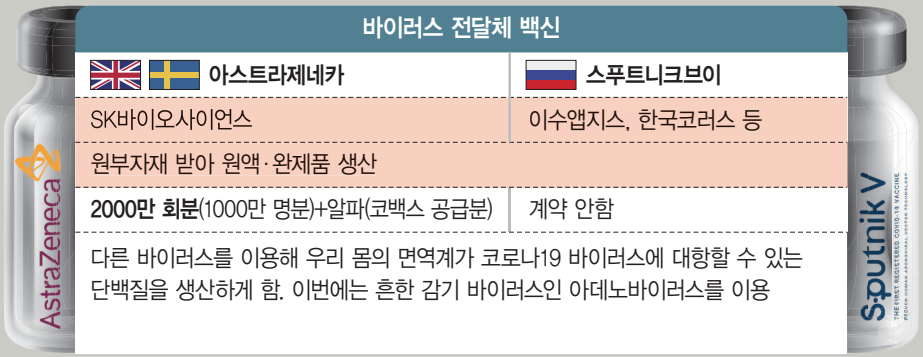
mRNA 생산 기반 확충 백신 개발에도 긍정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도 모더나와 투자 및 생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모더나는 우리나라에 mRNA 백신 생산시설 투자와 우리나라의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정부는 모더나의 국내 투자 활동과 비즈니스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mRNA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모더나와 mRNA 백신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보건복지부·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도 이날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국내 다수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플랫폼과 같은 방식의 백신이다. 노바백스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백신, 독감 결합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계약하면서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전달체(벡터) 생산방식(아스트라제네카·스푸트니크V)과 합성항원 방식(노바백스)에 이어 mRNA 기반 백신도 생산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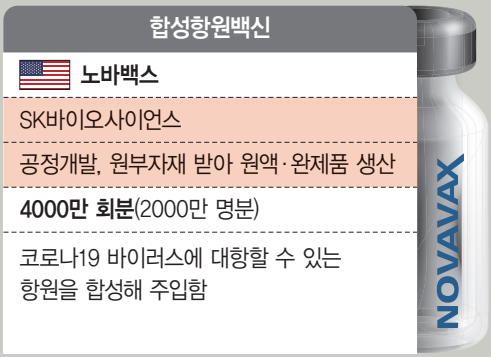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한미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세계 최고의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협력한다면 백

자료: 보건복지부, 각사 종합 ※시노팜·시노백(중국 개발) 등 불활성화 백신 유형은 국내 위탁생산 계약 없음, 스푸트니크브이는 백신 명으로 러시아 가말레야연구소가 개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브이
SK바이오사이언스	이수앱지스, 한국코러스 등
원부자재 받아 원액·완제품 생산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알파(코백스 공급분)	계약 안함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함. 이번에는 흔한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	



합성항원백신

노바백스
SK바이오사이언스
공정개발, 원부자재 받아 원액·완제품 생산
4000만 회분(2000만 명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원을 합성해 주입함

신의 빠른 생산과 공급으로 전 세계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5월 23일 "모더나와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mRNA 백신 개발에 대한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여러 백신 개발에 대한 임상·비임상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 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국내 생산 모더나 백신 일부가 국내에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으로 생산 기반을 갖추면 국내에 공급하기로 돼 있는 물량 공급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백신 생산 역량 확보"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백신 원액을 들여와 병에 주입한 뒤 밀봉하는 완제의약품 공정에 그쳐 기술이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의 핵심인 원료의약품 생산은 스위스 론자가 맡고 있다. 반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의 백신을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맺었고 스푸트니크브이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휴온스 등 국내기업 연합체(컨소시엄)도 원액과 완제품 생산을 모두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반장은 5월 24일 "완제의약품 생산이라는 것도 무균 공정이나 제조 품질 유지 등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수 국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전략반장은 "끝까지 백신 품질을 관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위탁생산 계약 말고도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 사이에 mRNA 백신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글로벌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다양한 플랫폼(전달체·합성항원·mRNA)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민간기업과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이 막중하다. 후속조치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에 "방미 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내각이 합심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

이찬영 기자

백신 파트너십, 지구촌 건강 기여로 이어지길

기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발생 첫해 2019를 뜻하는 이름과는 달리 햇수로는 3년째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이다. 발생 초기부터 감염 전파가 빠르면서도 다른 인플루엔자에 견줘 낮지 않은 사망률 등으로 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은 크게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5월 말 기준 약 1억 7000만 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약 2%에 이르는 350만 명이 숨졌다.

다행스러운 일은 전 인류의 노력으로 코로나19 감염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백신이 2020년 후반기 개발됐고 점차 생산이 많아지면서 빠르게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부터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제 감염자 수도 줄어 이르면 2021년 안에, 늦어도 2~3년이면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백신 국내서 완제품으로 생산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감염자도 5월말 기준 약 14만 명에 그치며 사망자도 약 2000명으로 사망률은 1.4%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을 발 빠르게 진단하고 이후 접촉자 등을 잘 관리한 덕분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전에 계획됐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한층 더 이른 시점에 일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5월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평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의도 관심 있게 지켜봤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먼저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인 모더나가 만드는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이 성사됐다는 점이다. 모더나는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가 생산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개발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견줘 그 효과가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항체 생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브이 백신의 국내 생산에 이어 백신 공급 활로를 더 확보하게 됐다. 백신 공급의 부족 상황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백신 공급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가에도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됐다.

또 한 가지 성과는 미군과 접촉이 잦은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을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점이다. 어찌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단체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적지 않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마음에도 많은 위안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국가 도울 수 있는 역량 확보해야

백신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나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로서는
백신 생산을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는 물론 지구촌의 감염병 위기를 하루라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유럽, 중국 등에서 백신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나왔다. 그 예측대로 개발이 이뤄졌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것도 큰 논란거리였다.

한때 미국에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백신이 나가는 것조차 반대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었겠지만 사실 이는 그다지 효과가 좋은 정책은 아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각 국가들 사이에 매우 많은 그리고 매우 빠른 이동이 있다. 이전부터 있었던 말인 '지구촌'은 감염병 유행에서 더 두드러진 단어가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된 나라는 중국이었지만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데에는 몇 달 걸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민 모두가 백신을 접종해도 접종을 받지 않은 다른 나라와 교류를 모두 끊을 수 없다면 여전히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은 더 빠른 속도로 백신을 생산하게 함으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의 국민도 접종받을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로서는 백신 생산을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는 물론 지구촌의 감염병 위기를 하루라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다만 예방백신은 '신'이 아니야

예방접종을 받은 뒤 마음껏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는 등 유행 이전 아니 그보다 훨씬 큰 자유를 누리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물론 마스크 쓰기나 손씻기 등에서도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성급한 기대다. 예방접종은 100% 즉 '신'이 아니다. 백신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며 항상 예외가 있다. 그리고 그 효과가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백신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학습하는 것이고 또 저항하는 힘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다. 보통의 학습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험문제 즉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크게 약해진다.

또 학습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대항할 수 있는 법을 우리 몸의 면역계가 배웠지만 이 역시 점차 희미해져 간다. 참고로 국내에도 이미 여러 종류의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고 점차 그 위세를 확장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아서 항체가 생성된 뒤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방문을 자제하고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도 잘 지켜야 한다. 또 평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습관을 유지하고 만성질환 등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



● 김양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
(전 한겨레 의료전문기자)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홍화정 그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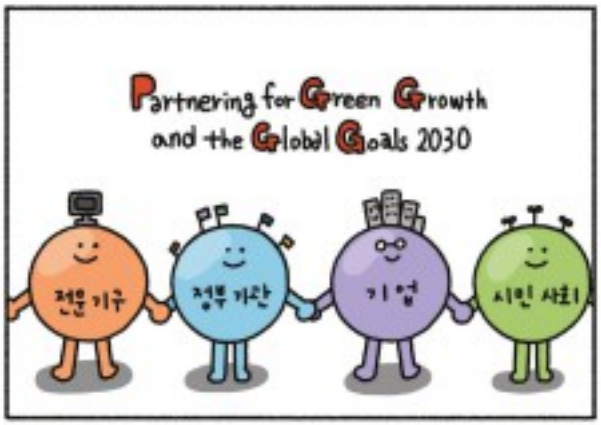
오늘은 모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행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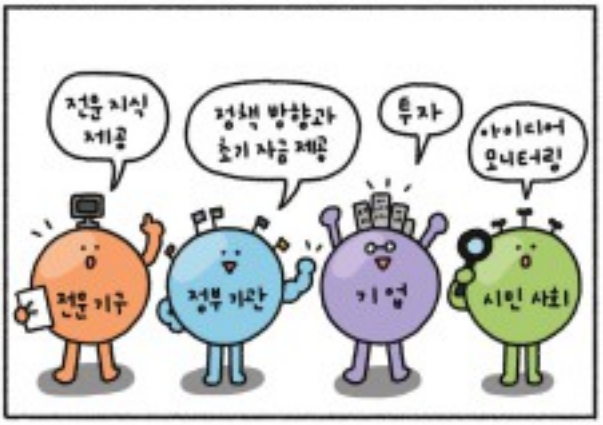
바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입니다!



우선 P4G 서울정상회의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P4G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연대한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P4G의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개도국 지원 등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는 5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솔라카우는 전기가 부족한 아프리카에
P4G가 제안한 해결책인데요,



누리집에서 P4G의 더 많은 행보와 비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누리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관할 수 있답니다.



www.2021p4g-seoulsummit.kr



더 푸르른 지구를 향한 힘찬 발걸음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전환은 우리 공동체가 더는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그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기상이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2021년 5월 30~31일 우리나라 최초 환경 분야 다자간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해 기존 유엔(UN) 체제, 국가 중심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공감대와 협조가 절실하다.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기후변화·저탄소·폐기물·산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지구환경과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했다.

5월 31일 열린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다섯 개 기본 세션 회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구환경을 살리는 기업들' 이야기를 비롯해 정상회의 일환인 '청소년 목소리 포럼'에서 기후위기 행동 관련 청소년 선언문을 발표하는 청소년도 만나봤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게티이미지뱅크



P4G 가 걸어온 길

2017. 09 P4G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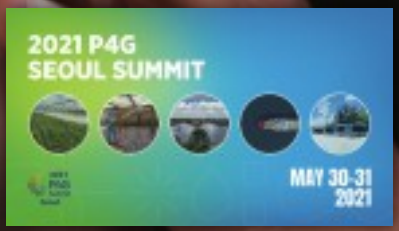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덴마크에서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포럼을 모태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을 확대 접목시켜 2017년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출범

2018. 10 제1차 P4G 정상회의(덴마크 코펜하겐)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코펜하겐 행동선언 채택

2019. 09 UN 기후행동 정상회의(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식적으로 2차 P4G 정상회의 개최 선언

2021. 05 제2차 P4G 정상회의(서울)



지속 가능한 ○○를 위하여

5월 31일 열린 기본 세션에선 P4G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다섯 개 분야인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다섯 개 기본 세션 주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석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5월 30~31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화상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상 세션과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학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여하는 기본 세션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5월 30일 P4G 정상회의 공식 개회를 선포하고 이튿날 정상 세션의 의장으로 녹색회복·탄소중립·민관협력과 관련된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폐회식과 함께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5월 31일 열린 기본 세션에선 P4G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다섯 개 분야인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P4G 중점 다섯 개 분야에 대해 주제별로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정부·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해 2시간 30분 동안 해당 주제에 기조 발제와 토의로 진행됐다.

특별 세션과 다르게 기본 세션 프로그램은 P4G 사무국이 세션을 주도한다. 기본 세션은 우리 정부의 관점과 P4G 사무국의 관점이 적절히 조화돼 열렸다.



P4G 녹리단

다섯 개 기본 세션 주제 및 주관부처

구분 (주관부처)	주제
물 (환경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
식량·농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속가능한 농업과 푸드시스템 구축
도시 (국토교통부)	도시,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 미래를 꿈꾸다
순환경제 (환경부)	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전환

전국 모든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정부는 이에 앞서 5월 24~29일을 녹색 미래 주간으로 지정하고 24일 저녁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 1층 D-숲에서 개막식을 열었다. 개막식 이후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그린 뉴딜 ▲시민사회 ▲해양 ▲생물 다양성 ▲비즈니스 포럼 ▲녹색기술 ▲산림 ▲녹색금융 ▲미래세대 등 10개 특별 세션이 열렸다.

이 가운데 개막식 당일 오후 8시에 열린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세션이 가장 주목 받았다. 국내 243개 전 광역·기초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의 희망: 생물 다양성 회복'을 주제로 5월 27일 열린 생물 다양성 세션에선 '코로나19 대유행과 생물 다양성 균형 회복의 필요성'을 주제로 방송인 타일러 라쉬,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5월 29일에는 2050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민관 참여 기구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가 이곳으로 통합된다.

한편 이번 기본·특별 세션 전체 일정은 온라인 플랫폼(virtual.2021p4g-seoulsummit.kr)으로 시청할 수 있다. ◉

기후위기 극복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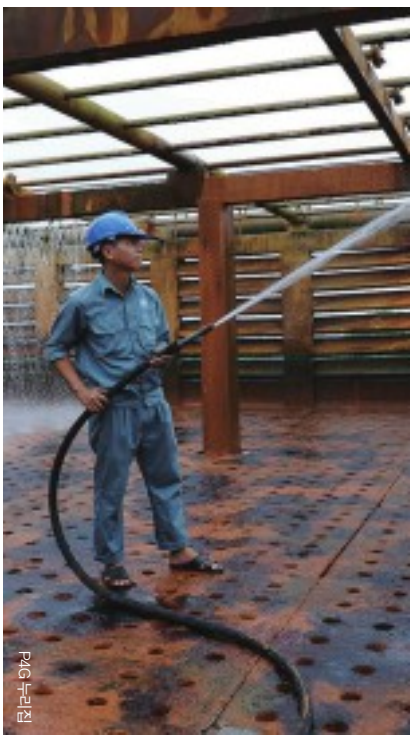
물 기본 세션은 기후위기 극복을 대전제로 물관리 혁신기술이 강조되는 시점에 물 관련 정부, 국제사회, 물 분야 선도 기업 등 대륙별, 국가별 이해관계자들이 기후위기 극복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으로 하루 10시간 이하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누수로 새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수장을 계속 건설하고 있지만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주변국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동남아시아는 강수량이 많아 물이 풍부하나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 물을 정수해 깨끗한 물로 바꾸어도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커다란 사회문제다. 인구 증가로 물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누수 관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개도국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물관리는 누수 문제다.

P4G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깨끗한 물이 부족한 베트남에 산업사물인터넷(IIoT) 장비와 인공지능(AI) 기술로 누수 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다.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로 누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물이 새는 소리를 수집해 수도관 누수 지점을 찾아 쉽게 관리할 수도 있다. 디지털 혁신이 국가 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다.


P4G 관련

물 분야 녹색 전환 이행촉구문 발표

환경부가 주관하는 물 기본 세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으로 물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스마트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장이다. 이를 통해 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전 지구적 지속 가능 발전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 물관리 분야의 정책과 기술 동향 논의는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물 기본 세션은 기후위기 극복을 대전제로 물관리 혁신기술이 강조되는 시점에 물 관련 정부, 국제사회, 물 분야 선도 기업 등 대륙별, 국가별 이해관계자들이 기후위기 극복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세션은 탄소중립 물관리 기술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P4G 사무국이 주도하는 개발도상국의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과 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시작은 인기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이 열었다. 마그나손이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 물관리 기술과 협치 활용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을 했다. 다음은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시그리드 카그 네덜란드 외교통상개발협력부 장관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물 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수에즈, 케토스 등 글로벌 물 기업,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들이 토론에 나섰다. 그 결과물로 물 순환 전 과정 협치 구축, 스마트 물관리 기술 개발·확산 등을 담은 물 분야 녹색 전환 이행촉구문을 발표했다.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

에너지 기본 세션에선 더 푸르른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전 세계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P4G 회원국이 탈탄소 에너지 해법을 모색했다.

에너지



아프리카 아이들 다섯 가운데 한 명은 아직도 학교가 아닌 일터로 향한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95%가 넘는 케냐에서는 일반 가정의 전기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해 한 달 수입의 10~20%를 전기에너지로 사용한다. 주요 통신·결제 수단인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걸어서 6시간이나 걸리는 충전소에 가야 한다. 전기에너지가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이 이런 고된 여정에 동원되고 있다.

P4G 파트너십은 아프리카의 비싸고 귀한 전기에너지가 아동임금을 대체하는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해결책을 제안했다. 젖소 모양의 태양광 패널을 제작해 전기를 만드는 솔라카우(Solar Cow)를 학교에 설치했다. 젖소의 젖 모양을 본뜬 보조 배터리를 가정에 나눠줬다. 솔라카우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요크(YOLK)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P4G 회원국 탈탄소 에너지 해법 모색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기본 세션은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를 주제로 열렸다. 더 푸르른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전 세계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P4G 회원국들이 탈탄소 에너지 해법을 모색했다.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에너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에너지 분야의 노력 없이 탄소중립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은 각 국가의 개별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P4G와 같은 다자간 협의체로 최신 기술과 글로벌 기업·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과 에너지의 미래 ▲탄소중립 시대 포용적 성장 ▲미래 에너지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변화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IEA 파티비롤 사무총장, 블룸버그 마이클 블룸버그 설립자, 한화솔루션 김동관 대표, 오스트리아 철강회사 뵈스트알피네(Voestalpine) 허버트 아이벤스타이너 최고경영자(CEO)가 각각의 주제로 연설했다.

뒤이어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 투자 촉진 모델을 선보인 P4G 파트너십 우수 사례들이 소개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에너지 기업의 혁신과 전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글로벌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에너지 세션이 P4G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함께 탄소중립 에너지 해법을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

지속 가능한 농업과 풍족한 먹거리

식량·농업 기본 세션은 우리 먹거리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 부담은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식량 공급과 탄소중립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부다.

식량·농업

기후변화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2020년은 최악의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킨 해였다.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업인들은 생계 어려움과 식량 불안 위험에 처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이 배고픈 상태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가 식량 부족 위기로 이어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회복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국제사회가 공감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등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푸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환경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협력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식량·농업 기본 세션의 주제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푸드 시스템 구축'인 배경이다.

P4G 파트너십으로 개도국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도운 사례도 발표됐다. 풍부한 수량과 열대우림의 기후 조건을 가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 토지 면적의 37%가 경작지며 인구 절반가량이 농업에 종사한다. 하지만 열악한 인프라와 전근대적인 영농 방식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다. 그나마 수확한 농작물은 고온다습한 기온과 교통, 유통망 부재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상하는 경우가 많다.


P4G 누리집

식량 공급과 탄소중립 두 토끼 잡기

P4G 파트너십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저온저장소를 설치해 농부와 도·소매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양광 저온저장소 덕분에 하루이틀밖에 보관할 수 없었던 농작물을 최대 3주 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식량·농업 기본 세션에서는 우리의 먹거리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고 환경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식량 공급과 탄소중립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유엔푸드시스템정상회의 특사, 라스무스 프렌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국제기구, 우수기업, 시민사회 등 녹색 성장 주도 역할을 하는 글로벌 리더가 참여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푸드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소규모 농업인의 식량 손실을 줄여 회복력 있는 식량 공급 관련 비즈니스 모델 파트너십 구축 방안도 찾았다.

도시, 민관 손잡고 녹색 미래 꿈꾸다

도시 세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과 관련된 민관 협력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고 관련 국외 사례를 공유해 국내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도시

오래된 차량이 많은 중남미 거대 도시에서 대기오염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을까? 무엇보다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해야한다. 이에 탄소배출 제로 버스 배치 시스템(ZEBRA·Zero Emission Bus Rapid-deployment Accelerator)을 도입했다. ZEBRA는 디젤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P4G 파트너십이 적극 지원하는 ZEBRA사업은 멕시코 멕시코시티, 브라질 상파울루, 콜롬비아 메데인 등 도시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가 모였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도시 세션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도시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 그들은 '도시,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탄소 저감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녹색 회복, 탄소중립 사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도시의 역할과 글로벌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도시·교통·플랫폼·녹색 건축 등에서 전문 지식을 겸비한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해, 플레밍 모르텐센 덴마크 개발협력 장관은 '친환경 도시의 위기 대응력'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이(e)-모빌리티와 대중교통 이(e)버스 파트너십, 개도국 도입 촉진을 위한 e-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과 탄소배출 '0' 건축물 등 다양한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P4G 누리집


P4G 누리집

스마트시티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

패널 토론에서는 스마트시티와 P4G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건축·도시, 교통, 플랫폼 등 분야별 발제와 함께 '스마트시티는 기후변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는 스마트시티의 전도사인 조지 사라이바 유럽정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협의체 위원장이다. 뒤이어 덴마크 건축사사무소 헤닝 라센의 최고경영자 메테 키네 프랜슨, 현대자동차 박철 상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대연 선임연구위원, NTS그룹 최고경영자를 지낸 마크 헨드릭세 의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도시 세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과 관련된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고 관련 국외 사례를 공유해 국내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

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쓰레기 0' 사회로

순환경제 세션에선 순환경제를 통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업·시민·국제기구·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기술·지식·경험과 각 주체별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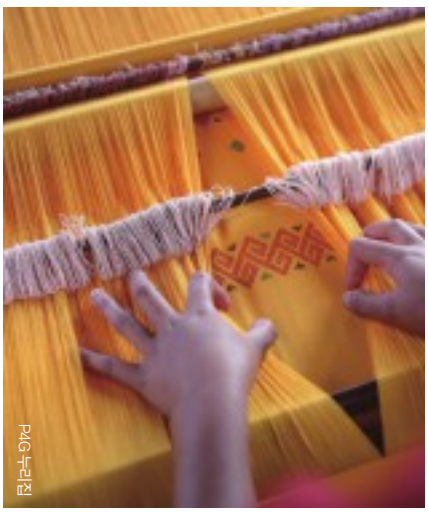
순환경제

우리가 입고 버리는 옷은 전체 직물의 81%에 이른다. 대부분 매립지에 묻히거나 소각된다. 버려진 의류의 고작 1%만 새로운 재료로 재활용된다. 나머지 99% 의류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순환패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순환패션 파트너십으로 의류 폐기물을 파악하고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 파트너십의 목표는 순환패션의류사업 체제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섬유와 신발 생산과 관련된 폐기물을 줄이고 천연자원 고갈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취지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순환경제 기본 세션은 '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전환'을 주제로 연설과 발표·토론을 진행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덴마크 환경부 장관,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 차관 등 국내외 정부 각료와 코카콜라, SK종합화학 등 국내외 기업,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원연구소(WRI)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P4G 누리집


P4G 누리집

순환경제로 전환을 위한 과제와 해법

이 자리에서 순환경제를 통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시민·국제기구·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기술, 지식, 경험과 각 주체별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행동 전략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천연원료 생산·소비 감축, 재생원료 사용과 재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세션은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은 그린딜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관련 법적 기반 마련과 한국형 순환경제 실천 전략 수립계획 등을 소개했고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부 장관이 자국의 순환경제 전략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보냈다.

이어 P4G 사무국 세션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혁신 해결책(솔루션)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순환경제로 전환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각계 다양한 주체가 모여 토론을 벌였다.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최고경영자가 폐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한 용기 제작 사례를, 나경수 SK종합화학 대표가 폐플라스틱 유화기술 개발 계획을 알렸다.

심은하 기자

2050 탄소중립 향한 국가 의지 공식화



4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조선업계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닻 올린 탄소중립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앞으로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한다. 목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탄소 순 배출량이 '0(제로)'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렸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민관 참여 기구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가 이곳으로 통합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탄소중립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에너지 정책학 박사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앞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 다뤄

탄소중립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2020년 11월 열린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는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분과위원회 아래에는 따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전

체위원회 밑에 총괄기획위원회를 설치해 8개 분과 업무를 조정한다.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산업계·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창구도 따로 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전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끌고 국가 비전 및 이행계획,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될 계층과 지역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같은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기후변화를 전면에 내세운 공식 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철강 등 11개 분야 민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앞서 철강, 석유화학 등 11개 민간 업계 역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 탄소중립위원회를 꾸리는 등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KG동부제철·세아제강·심팩 등 국내 6대 철강 기업은 2월 2일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산 구조 전환으로 탄소 배출 감축 ▲그린철강위원회를 통한 정보와 의견 공유 ▲정부 정책 과제 발굴 및 제언과 미래 지속 가능 경쟁력 향상 ▲국제 협력 강화 등의 실천 과제가 담겼다.

석유화학업계는 2월 9일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SK종합화학·한화토탈·롯데케미칼·LG화학·여천 NCC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체들은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시멘트업계는 2월 17일 '시멘트 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쌍용양회·삼표·한일·아세아 등 시멘트업계 7개 대표 기업은 "혁신 기술 개발과 생산 구조 전환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네 개사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그동안 최신 감축 설비 투자, 대체 공정 가스 개발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감소해왔다.

전자·전기·전지업계는 3월 15일 '전기·전자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탄소중립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선언문에는 삼성전자·LG전자·삼성전기·LG이노텍·LS전선·인텍전기전자·삼성SDI·LG에너지솔루션 등 여덟 개 대표 기업이 참여했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과 정유 공정상 친환경 원료 활용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전문가와 별도의 특별팀을 구성해 기술 수준, 품질,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심은하 기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너지기본계획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다룬다."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가 겪어야 살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자치기구인 ‘수피아’ 단원 김윤규, 정예원, 허신혜 학생(앞에서부터)이 5월 18일 햇볕이 따사로운 수련관 옆 공원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65명의 국내 청소년 그리고 인도, 일본, 케냐, 베트남, 멕시코,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대만 등 국외 청소년 47명이 포함된 총 112명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기후위기 선언문 함께 쓴 청소년탐사단 '수피아'

"어른들은 이 세상을 알아가기에도 바쁜 우리 청소년들이 왜 나서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의 모든 피해는 우리 세대가 겪어야 할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5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이야기관에선 기후위기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전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마련한 '2021 P4G 청소년 목소리 페스타(2021 Youth Voice Festa for P4G, 이하 청소년 목소리 페스타)' 행사 가운데 '기후행동 청소년의 목소리(이하 청소년의 목소리)'에서 나온 말이다.

청소년 112명 기후위기 주제 한목소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소년 목소리 페스타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Global Youth Climate Challenge-미래세대)' 사전행사로 기후행동에 관심 있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활동상과 의견을 공유하고 지구 환경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선정 과정을 거쳐 이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약 두 달간 그룹별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탐색·논의했다.

이후 사회, 국가 정상, 관계부처 등 다양한 집단에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을 선언문에 담았다. 65명의 국내 청소년 그리고 인도, 일본, 케냐, 베트남, 멕시코,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대만 등 국외 청소년 47명이 포함된 총 112명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 목소리 페스타에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 자치기구인 '수피아' 소속 단원 3명도 참여했다. 정예원



(이매고 2년) 허신혜(내정중 2년) 김윤규(샛별중 1년)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순우리말로 '숲의 요정'을 뜻하는 수피아는 2010년 수련관이 개관하면서 결성된 청소년생태탐사단이다. 생태와 환경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 성남시청소년재단 모범표창, 성남시의회의장상을 비롯해 2020년 환경의날 환경부장관 표창, 경기도교육감상 등을 받았다.

지역사회로 나가 환경 캠페인도

수피아의 생태탐사 및 보호 활동 이력은 매우 다양하다. 5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수련관에서 만난 정예원 수피아 단장은 수련관 인근 금토산과 판교공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활동을 소개했다. 이들은 반딧불이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농사를 짓는가 하면 친환경 묵논 프로젝트를 통해 모내기와 묵논(오래된 논) 습지 생육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함께 판교공원 속 생태 모니터링 및 자연이 훼손된 길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복원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이들은 지역사회로 나가 환경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덮으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걸 식물커튼(그린커튼)이라고 합니다. 수련관 내 발코니에 식물커튼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판교역에서 시민들에게 식물커튼을 아는지 설문조사 활동도 했습니다. 지하철 수내역에서 에어컨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부채를 직접 제작해 나눠주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어요."

수피아가 청소년 목소리 페스타에 참여한 이유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더 넓은 곳에 수피아의 경험과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 양은 "오랜 시간 수피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과 우리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행사에 참여한 계기를 밝혔다.

좁게는 국내 다른 지역, 넓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일은 수피아 단원들에게도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청소년들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중 P4G 주요 분야인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와 관련해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과 행동 의지를 담아 선언문을 작성했다.

각각 기획팀(정예원 양) 홍보팀(허신혜 양) 선언문팀(김윤규 군)에 소속됐던 이들은 기념손찍기(핸드프린팅) 등 퍼포먼스 기획,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한 홍보, 선언문 작성 등에 고루 참여했다. 허 양은 "다른 팀들의 활동 내용을 접하며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청소년이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부·정치인 등 더 강력한 목표 세워야"

선언문은 온라인 토의 과정으로 길어 올린 공동 목소리라



수피아의 2021년 주요 활동 주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및 재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허신혜, 정예원, 김윤규 학생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우미 선생님(왼쪽부터)과 함께 수련관 앞에서 '수피아' 프로젝트 변화도를 소개하고 있다.

는 점에서 뜻깊은 결과물이었다. 선언문팀 김 군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현재 지구 공동체가 처한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귀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고 설명했다.

선언문 가운데 학생들이 인상 깊게 생각하는 대목도 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더 강력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목표만 세울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당장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정 양은 선언문 속 이 대목을 손꼽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수피아 활동과 일상 속에서 경험해온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각종 미디어 등으로 접한 환경오염 실태에 크게 놀랐던 경험도 털어놨다. '갈매기 배속에 플라스틱 조각이 가득한 사진' '청바지 하나를 만드는 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된다는 정보' 등을 접하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나 기업, 국제사회뿐 아니라 시민들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정 양은 "'나 하나쯤 실천 안 해도 괜찮겠지'가 아닌 '나 하나만 실천해도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수피아 단원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위한 실천도 하고 있다. 허 양은 "평소 유리, 플라스틱, 캔 등 분리배출에 각별히 신경 쓰고 양치를 할 땐 컵을 사용해 물을 절약한다"고 말했다. "저는 교복을 사지 않고 물려받아 입고 있고요. 이를 비롯해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뜻)' 활동이나 아름다운가게 이용 등 생활 곳곳에서 물건 재사용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한편 정 양은 '텀블러(개인통컵) 및 장바구니 사용' '미니멀 라이프(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사는 생활) 실천' 등을, 김 군은 '빨대 안 쓰기' '에어컨 대신 부채나 선풍기 사용' 등도 하고 있다.

'나 하나쯤 안 해도' 아닌 '나 하나만 실천해도'

수피아의 2021년 주요 활동 주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다. 정 양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을 먹는 일이 많아지고 그로써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및 재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년 청소년 목소리 페스타 참여를 계기로 추진한 일도 있다. 우선 이번에 함께 만든 선언문에 따라 정부 및 기업 등이 지구환경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할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선언문을 더 많은 시민이 접하고 뜻에 동참하도록 지역사회에 홍보도 해나갈 생각이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모두의 행동으로!(Voice of Youth, Action for the Earth!)'라는 선언문 구호처럼 지구를 위한 움직임에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

글 김청연 기자, 사진 곽윤섭 기자

내 집에 한 그루 심으면 숲에 또 한 그루



5월 12일 서울 성동구 마장로 트리플래닛 팩토리에서 노아름 팀장(왼쪽 앞)이 직원들과 함께 〈공감〉 독자들에게 인사를 보내고 있다. 팀장이 안고 있는 고양이 도토리도 트리플래닛 팩토리 식구

숲을 만드는 회사 트리플래닛은 '내 공간에 한 그루, 숲에 또 한 그루'라는 의미의 반려나무 입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려나무 한 그루를 들이면 트리플래닛이 조성하는 숲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지는 방식이다.



반려나무 입양 사업 이끄는 '트리플래닛'

환경을 위해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반려나무 한 그루를 입양할 때 숲에도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다면 어떨까? 숲을 만드는 회사 트리플래닛은 '내 공간에 한 그루, 숲에 또 한 그루'라는 의미의 반려나무 입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려나무 한 그루를 입양하면 트리플래닛이 조성하는 숲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지는 방식이다.

P4G 홍보하고 교실 숲 조성 등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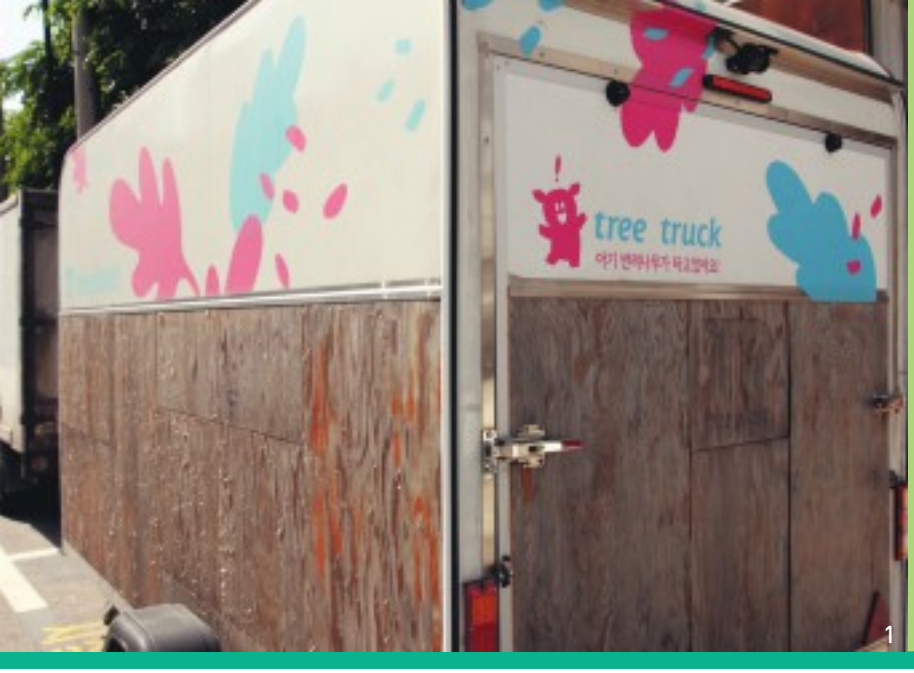
햇빛을 받을수록 잎 윗부분이 금빛으로 변하는 황금사철,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테이블야자,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카네이션. 5월 12일 서울 성동구 마장로에 있는 트리플래닛 팩토리에 들어서자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나무들이 인사를 건넸다.

"5월에 출고된 트리플래닛 반려나무 박스에는 특별한 스티커도 넣었다." 트리플래닛 상품팀 노아름 팀장의 설명이다. 트리플래닛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와 함께 숲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귀여운 스티커다. 트리플래닛은 정상회의 홍보와 더불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과 함께 학교 교실 숲 조성도 준비 중이다.

이 기업은 2020년부터 산림청, SK임업, 에티오피아 정부와 함께 에티오피아 커피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장을 구축하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대륙별 중견 국가들의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인 P4G 이니셔티브(구상) 활동의 하나로 진행하는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이다.

마스크 자투리·페페트병으로 만든 화분

트리플래닛의 반려나무는 입양 시 입양한 이의 이름을 적



1


2

어 내면 훗날 숲이 조성된 뒤 세워지는 현판에 각인도 해준다. 매해 나무를 심는 계절인 봄(4월), 가을(10월)에는 숲에 나무를 직접 심어보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구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한 지금 반려나무 한 그루 키우는 걸 넘어 많은 사람을 '나무 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에는 이 특별한 일에 참여한 사람의 사진과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다. 5월 8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어버이날이자 결혼식 상견례날 입양한 카네이션과 숲 조성 인증서 사진을 게시했다.

노 팀장이 손에 든 반려나무 화분에도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화분 이름은 스밈이다. 이 화분은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면 화분 스스로 물을 흡수하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졌다.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외피에 물을 충전하면 세라믹으로 만든 내피에 물이 스며드는 방식이다.

이 화분으로 키운 식물의 생존률은 98%에 이른다. 식물초보자에게 필요한 똑똑한 화분이지만 이 화분의 비밀은 식물 관리가 편하다는 데만 있는 건 아니다. 노 팀장은 이 화분이 마스크 자투리와 재활용 페트병 등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다. 트리플래닛 반려나무 포장에 쓰는 포장재는 모두 종이다.

반려나무 입양 사업에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고객에게 반려나무를 선물해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전하는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임직원이 반려나무를 입양해 사무실에서 잘 키운 뒤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 사업도 있다. 결혼·승진·생일·입사·개업 등 기념일에 화환 대신 반려나무를 선물하는 기프트리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나무 심기 게임에서 스타숲, 기억의 숲까지

트리플래닛은 2010년 김형수 대표와 정민철 이사가 설립했다. 군 복무 중 선임과 후임으로 만난 두 사람은 환경에 대한 공통 관심을 사업으로 확장했다.

흥미롭게도 이 기업은 온라인 게임으로 시작했다. 사람들이 게임 속에서 나무를 심고 잘 키우면 가상의 나무가 실제 숲에 심어지는 방식이다. 비용은 기업 후원이나 광고로 마련했다. 게임 자체도 재밌을 뿐 아니라 의미에 매료돼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게임 사업을 종료하고 스타숲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팬들이 자금을 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붙인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월호 기억의 숲, 연평해전 영웅의 숲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남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의미의 숲 조성 프로젝트인 '포레스트 인 피스(Forest in Peace) 프로젝트'도 이어갔다.

팽목항 근처에 있는 기억의 숲은 배우 오드리 헵번의 첫째 아들인 션 헵번이 "세월호 아이들을 추모할 숲을 만들자"고 제안해 이뤄졌다.

네팔 대지진 이후엔 '메이크 유어 팜(Make Your Farm) 프로젝트'로 커피농가의 지속 가능한 삶을 돕자는 뜻에서 커피나무 등을 심어주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또한 국내 초등학교 등 실내에 숲을 만드는 실내 숲 조성사업도 하고 있다.



3

세월호 기억의 숲, 연평해전 영웅의 숲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남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의미의 숲 조성 프로젝트인 '포레스트 인 피스(Forest in Peace) 프로젝트'도 이어갔다.

1 팩토리 앞에 주차된 트리 트럭. 반려나무 화분을 실어 나른다. 2 노아름 팀장이 주목이 자라고 있는 스밈 화분을 소개하고 있다. 3 트리플래닛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홍보 일환으로 제작한 스티커 | 트리플래닛

반려나무 입양 사업 등 시민 참여 끌어내

최근 트리플래닛의 주요 콘텐츠는 반려나무 입양 사업이다. 이는 시민 개인이 직접 참여하기 좋은 프로젝트다.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반려나무를 사면 수익금 일부를 숲 조성 기금으로 사용해 화재 현장 등 숲 조성이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다. 반려동물 입양 사업으로 숲에 심는 나무와 장소는 트리플래닛 측이 지정한다. 노 팀장은 이에 대해 "숲의 환경이나 특성에 맞춰 산림청 전문가와 함께 계획적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숲의 경우 산불 복구에 유리한 수종이 따로 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 들어갈 수종, 그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종 등이 다 다르다. 숲 상황에 맞춰 생태계 구축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숲의 천이(遷移)라고 한다."

그간 트리플래닛은 2018년 삼척 산불피해 복구 숲, 같은 해 백두대간 멸종 위기 종 복원 숲, 인천 수도권 매립지 미세먼지 방지 숲, 2019년 백두대간 멸종 위기 종 보호 숲과 같은 해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숲 등 다양한 숲 조성에 힘써왔다. 그간 조성한 숲과 심어진 나무 수는 13개국 314개 숲에 112만 6542그루(5월 16일 기준)다.

최근엔 강원도 태백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느라 숲 조성팀과 김 대표 등은 강원도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산림이 노후화되면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 이유로 수종 갱신과 나무 임령 갱신 등을 해야한다. 노후화된 나무는 방치하지 말고 잘 베어서 목재로 사용한다."

반려나무 입양 사업과 숲 조성 활동엔 현대자동차, 한화, 마켓컬리 등 다양한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마켓컬리는 모든 포장재 소재를 종이로 교체하는 자사 정책인 올페이퍼챌린지 일환으로 고객이 배송 받은 종이 박스를 문 앞에 내놓으면 다음 배송 시 회수해 폐지 재활용 업체에 판매한 뒤 이 수익금을 트리플래닛에 전달한다. 이 수익금은 초등학교 교실 숲 조성에 쓰인다.

"환경 살리기 동참 시민 만날 때 감동"

트리플래닛에서 일하는 대다수는 환경문제 해결과 숲 조성 등 기업의 철학과 뜻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노 팀장은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임무가 더해진 일을 하기 때문에 보람차고 자부심이 크다"고 말한다.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는 순간은 숲 조성 행사에 온 고객과 직접 만날 때다. 그는 "단순히 반려나무 입양을 넘어 일상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닫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요즘 트리플래닛은 환경교육 실습형 교재 제작도 준비 중이다. 교실 숲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직접 환경교육을 해줄 수 없냐는 현장의 요청이 잦아 추진하고 있다. 노 팀장은 "비대면 시대에 맞춤한 영상 교육 자료와 화분과 식물 등으로 구성한 실습 교재를 준비 중"이라며 "현재 숲 조성사업 개발과 기획 분야, 상품팀 등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다. 환경에 대한 트리플래닛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

글 김청연 기자, 사진 곽윤섭 기자

7월부터 50~59세·수능 수험생 등 접종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마스크 해방'

정부 대책 종합

7월부터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및 교사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다. 하반기부터 18~5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먼저 예방접종을 받을 대상이 정해진 것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5월 27일 브리핑에서 "우선적으로 7월에 먼저 50~59세 그리고 고3 및 수능 수험생, 초·중·고교 교사 등에 대한 접종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방식은 현재 60세 이상 74세까지와 같이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고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의료기관, 접종기관을 선택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반장은 이어 "3분기 계획은 7월 이후 들어오는 백신별 도입 일정이 구체화되면 접종 대상자별 예약과 접종 일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활동·실외 다중시설 이용 자유롭게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6월부터 시행되는 1단계 조치에선 1차 접종자에 대해선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전 국민 70% 접종이 달성되면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6일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3차로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예방접종을 받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확정한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에 더해서 추가 완화조치를 그때그때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6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치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1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만약 조부모가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처럼 접종자를 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면 추석 연휴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65~74세 일반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5월 27일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에서 어르신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 연합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고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가 많았던 문화재 특별 관람행사에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회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등 지자체나 민간에서도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처 조정 권한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김 총리는 "민간 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실행해준다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 이후 방역 기준 전면 재조정

전 국민의 25%인 상반기 1300만명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이후인 7월부터는 2차 방역조처 시행에 들어간다. 2차 방역조처에선 접종 완료자의 경우 5인 또는 9인(일부 지자체)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과 추석 명절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차 접종자는 실외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관람, 영화관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와 함성 응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차 방역조처부터는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게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선 마스크 없이 산책과 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실외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접종률과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다. 전 국민 예방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낮아지는 추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월 24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현황은 신고 당시 기준으로 148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명, 화이자 백신이 88명"이라며 "백신별 10만 명 접종당 사망신고율은 유사했고 영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전체 예방접종 553만 건 중 이상반응을 신고한 비율은 0.44%였다"면서 "신고된 사례의 대부분인 95.3%는 근육통·두통 등의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으며 나머지 4.6%는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신고율이 높았고, 연령대로는 18~29세가 2.5%로 가장 높았다"며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이상반응 신고율이 0.15%로 낮았다"고 말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81%, 화이자 백신이 0.18%의 신고율을 보였다. 2차 접종이 본격화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으나 75세 이상에서는 1차와 2차 예방접종 후 신고율이 0.15%로 유사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예방접종을 한 경우 감염 예방 효과는 89.5%로 나타났다"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효과가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예약 절차 자료: 질병관리청



시범 운영: 5월 27일 오후 1시~

접종 위탁의료기관, 당일 잔여 백신 발생 수량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

네이버 및 카카오, 잔여 백신 정보를 지도 형태로 실시간 제공

잔여 백신 조회 방법

네이버
네이버 앱, 네이버지도 앱, 스마트폰 인터넷 웹 탐색기 (www.naver.com)에서 네이버에 접속해 잔여백신 검색

카카오
카카오톡의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 선택
또는 카카오 맵 (업데이트 필요) 앱을 통해 조회

▼

잔여 백신 수량 표시

초록색: 7개 이상 | 노란색: 4~6개 | 빨간색: 3개 이하

▼

당일 예약 신청
- 예약 신청은 선착순
- 중복 예약은 불가능
- 예약취소 없이 '노쇼' 할 경우 이후 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한 접종 예약 불가능

잔여 백신 있을 경우
1.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 선택
2. 본인인증 절차 진행
3. 예약 눌러 **당일예약** 신청

잔여 백신 없을 경우
1. 희망하는 접종기관 선택 후 알림 신청(최대 5개까지 가능)
2. 해당 기관에서 잔여 백신 발생 정보 확인
3. 알림 받아 **당일예약** 신청

이어 "60대가 89.5%, 70대가 91.3%, 80세 이상에서 90.3%의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예방접종 후에 감염이 됐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어 사망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는 10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5월 27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5월 27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당일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앞으로 2주간 시범운영을 해 미흡한 점을 보완한 후 6월 9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나 사전예약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은 잔여 백신 당일 예약이 불가능하다.

잔여 백신 조회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잔여 백신 발생 수량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면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관련 정보를 연계 받아 지도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네이버지도 앱 등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할 경우 하단 샵 탭(#)에서 잔여 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에서 조회하면 된다.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선택 후 예약 탭을 누르면 당일 예약 신청이 완료된다. 예약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미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본인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당일 예약 희망자는 특정 위탁의료기관을 사전에 최대 5개까지 등록하면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잔여 백신이 발생된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잔여 백신 조회 화면에서 접종기관 선택 후 알림 신청 탭을 누르면 네이버 알림 및 카카오톡 지갑 채널에서 해당 접종기관이 등록한 잔여 백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후 해당 알림 내의 당일 예약 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부터 12월 31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1년 70만여 가구가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2021년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원낙연 기자

예방접종률 77%, 요양병원에 돌아온 일상

집단 격리됐던 부천시 가은병원 가보니

5월 24일 오후 경기 부천시 송내동 가은병원. 어르신을 중심으로 31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이 요양병원에서 한 남성 면회객이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로 보이는 환자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면회객은 하얗게 센 머리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환자의 얼굴을 살피며 연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병원에는 이날 여러 명의 외부 방문객들이 오갔다. 혹시나 열이 나진 않는지 병원 입구에서 방문자의 체온을 확인하고 수기로 방문자 기록도 적게 했지만 경비원이나 병원 원장, 간병인들은 방문객들의 방문에 크게 경계심을 내비치지 않았다. 2월 이전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은 마치 꿈만 같다.

가은병원에선 코로나19 3차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환자가 38명 발생했다. 지역사회 감염이 하루 1000명대까지 치솟던 때였다. 병원은 2주에 한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면서 대비했지만 감염병의 틈입을 막을 순 없었다. 두 차례 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한 간병사가 일주일 뒤 진행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이, 이 간병사를 최초 전파자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졌다.

2020년 말 집단감염 100명이 45일 격리

간병사만이 아니었다. 입원환자로부터 시작된 집단감염도 있었다. 한 병원에서 최초 전파자가 다른 두 개의 집단 감염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결국 이 병원의 5~6층 환자와 간병인, 종사자 등 100명가량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45일 동안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돼야 했다. 격리자들은 배달 도시락과 생수를 먹으며 페이스 실드(얼굴 가리개)와 가운을 착용하고 꼬박 24시간을 보냈다.

대소변이 묻은 기저귀도 외부로 반출하지 못했다. 이 기간 병원에서 치료받던 병원 원장의 어머니도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국 숨졌다. 이 병원 원장인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방이 안 되니까, 정말 무력했다. 진짜 악몽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 26일 시작된 예방접종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그 어느 곳보다 바이러스 감염 원인과 침투 경로를 예상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가은병원은 첫날부터 종사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적극 장려했다. 그렇게 이날 현재까지 320명 정도 되는 병원 종사자 가운데 98%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300명이 넘는 환자까지 포함한 1차 접종률은 77%에 달한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종사자와 환자 비율도 42.5%가량 된다.

외부 방문객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옅어진 이날의 분위기는 이 접종률이 준 자신감에서 비롯했다. 기 회장은 "우리 요양병원은 백신을 이미 맞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이 자유로운 청정구역이 됐다"며 "2주 정도가 지나면 2차 접종을 끝낸 사람은 접촉 면회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접종을 마친 이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안도감이다. 코호트 격리를 겪은 이 병원 간병사 이승현(66) 씨

"지역사회에 감염이 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면 백신 밖에 탈출구가 없어요. 백신 무용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백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백신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있었는데, 싶은 거죠."



5월 24일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가은병원(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하고 있다. | 한겨레

는 "혹시라도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코로나19 이후 식당에서 마음 놓고 외식도 못하고 목욕탕 한 번을 못 갔다"며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받으며 일상 회복 중 "마음 홀가분"

예방접종 이후 감염의 늪에서 벗어난 가은병원처럼 코로나19 백신은 1차 접종만으로도 상당한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를 보면 5월 17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2주가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감염 예방효과는 8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1차 접종을 마친 고령층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사망한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 예방효과가 100%인 것이다.

4월과 5월 들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시설 등 네 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월 20일 기준 환자가 34명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요양원은 백신 미접종자의 75%가 된 진단된 반면 접종자 중에는 5.3%만 진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전남 여수시 재활병원에서도 미접종자의 코로나19 발병률이 각각 11.3%, 12.4%, 13%였으나 접종자의 발병률은 0.9%, 0.4%, 2.4%에 불과했다.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의 감염 우려가 줄어든 만큼 방역당국은 6월부터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났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이상이라면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한 뒤 면회가 가능하지만 접종률이 75% 미만이라면 면회객에게는 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감염이 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면 백신밖에 탈출구가 없어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백신 무용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백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백신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있었는데, 싶은 거죠." 기 회장이 마스크 너머로 열변을 토했다. ◉

서혜미 〈한겨레〉 기자



1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어

안전한 스쿨존, 행복한 아이들

교통안전 위해 이렇게 바꿨습니다

4월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덕암초등학교 방향으로 꺾어 들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보였다. 도로 바닥 전체가 짙은 녹색으로 포장됐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중간중간 블록 포장을 해 갑자기 차량이 설 때 미끄러짐도 방지했다. 학교 정문 앞 삼거리에는 회전교차로처럼 노란색으로 큰 원을 그려 놓아 자연스럽게 일단 멈춤을 유도했다. 횡단보도 맞은편을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고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옐로카펫을 그려 놓았다. 녹색,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시행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었다. 횡단보도와 과속 방지턱을 정비하고 안전 울타리 등을 교체했다.

노란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안전 디자인을 적용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면서 산뜻하고 밝은 느낌이다.

학교 앞에서 자녀의 귀가를 기다리던 학부모 유은영 씨는 "길바닥이 많이 깨끗해졌다. 전에는 학교 정문 앞 도로에만 붉은색으로 칠했는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개선되면서 속도도 많이 줄고 주·정차를 안 하니까 덜 위험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는 "도로 바닥을 녹색으로 도색하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연히 구별돼 좋다"며 "차를 운전하면서 이 길은 조심해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말했다.



2

1 4월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덕암초등학교 학생들이 노태갑 학교보안관의 안내에 따라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 덕암초등학교 후문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 바닥에 CCTV 단속구간임을 알리는 문구가 적혀 있고 울타리에는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학교 앞 세 갈래 도로 전체 녹색 포장

1년 전만 해도 덕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는 도로 폭이 4~8m로 협소한 데다 노면 상태와 교통시설물 노후로 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학교 후문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은 출·퇴근 시간 차량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 위험이 컸던 곳이다. 학교보안관 제도가 생긴 2011년부터 덕암초등학교를 지키고 있는 노태갑 학교보안관은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상황이 열악했다. 뚜렷하게 도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학로 주변 환경이 어수선했다"며 "학교 북쪽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있는데 5년 전부터 큰 도로가 막히면 학교 앞 내리막 도로를 샛길처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시행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덕암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세 갈래 도로 750m 구간 전체를 도색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다. 과속과 주·정차를 단속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 두 대와 주행 속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도 새로 설치했다. 횡단보도와 과속 방지턱을 정비하고 안전 울타리 등을 교체했다.

노태갑 학교보안관은 "학교 앞으로 향하는 도로 전체 색깔이 바뀌고 현재 속도가 표시되니까 그냥 막 달리던 차들도 천천히 다니고 1년 전과 확연히 다르다. 나무가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전지 작업도 많이 했다"며 "도로나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학생들도 기분이 상쾌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2021년 3월 덕암초등학교에 부임한 박은숙 교감은 "이렇게 도색이 잘된 도로가 있는 학교는 처음 봤다. 다른 학교들도 여기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다 칠하면 좋겠다"고 바랐다.

사회적 인식 자리 잡으며 불법 주·정차 '뚝'

학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길가 주·정차 문제다. 학부모 유은영 씨는 "예전에 등하교 시간이면 학교 앞 길가에 주·정차가 심했다. 길이 워낙 좁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 주·정차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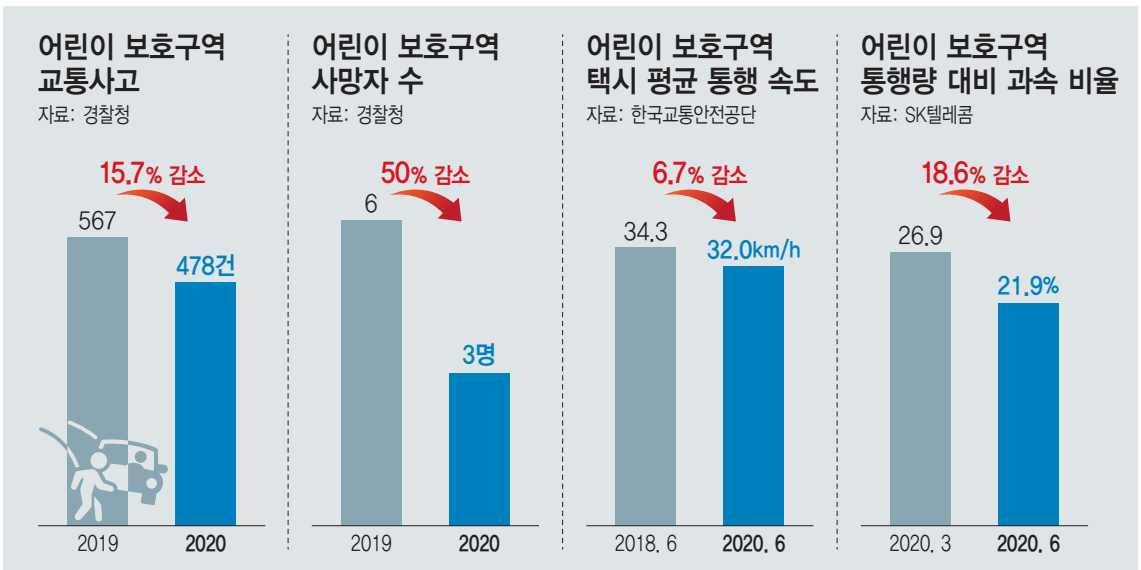
이날 하교 시간에 정문 앞에 주·정차한 차량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모두 정문 맞은편 보행로에 서서 자녀의 하교를 기다렸다. 노태갑 학교 보안관은 "전에는 등하교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하지 못한 사람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차를 세워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제지해도 차를 세워 놓고 가 버리면 조치할 방법이 없어 힘들었다"며 "CCTV 카메라를 설치한 2020년 하반기부터 주·정차를 안 한다. 구청에서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수시로 단속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1년 전 남양주 별내동에서 이사 온 학부모 이은순 씨는 "별내동에 있는 학교에서도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다. 등하교 시간이면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못 대게 했다. 여기는 단속 카메라 때문인지 몰라도 다른 곳보다 많이 안 대는 것 같다"고 했다.



덕암초등학교로 향하는 도로 전체가 짙은 녹색으로 포장돼 있다. 중간중간 블록 포장을 해 갑자기 차량이 설 때 미끄러짐 방지도 할 수 있다.

정석우 덕암초등학교 교사도 "1년 전만 해도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지만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순 씨는 "저 또한 학교 앞은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점점 자리 잡는 것 같다"고 했다.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와 50% 감소했다. 차량의 평균 통행 속도와 과속 비율도 각각 6.7%와 18.6%로 줄어드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도 개선됐다.

2학년 학생 학부모인 ㄴ씨는 "이제 운전자들이 학교 앞은 조심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 안이 더 위험하다고 느낀다. 아이들이 체구도 작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좋겠다.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 공사하는 구간이 있어 걱정"이라며 "그래도 학생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제도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 15.7% 감소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같은 안전시설을 확대·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를 설치했고 초등학교 등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을 폐지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함에 따라 하루 평균 254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역 주민의 적극 참여가 이어졌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두 배에서 세 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 시설을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했고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했다. 또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등으로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와 50% 감소했다. 차량의 평균 통행 속도와 과속 비율도 각각 6.7%와 18.6%로 줄어드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도 개선됐다. ◉

글·사진 원낙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더 강화

정부는 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552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3330곳에 신호기를 추가한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를 교체하도록 추진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우선 도로를 도입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보호구역 지정 범위 밖에서 어린이가 주로 통행하는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900개 학교에 옐로카펫을 추가 설치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국민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 기관 공동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 표시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 장비를 2323대 설치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학교당 6명씩 모두 3만 6000명 배치한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를 2021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한 걸음 더 다가온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네 돌을 맞았다. 현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인구 구조가 고착화하고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고 사회 양극화가 커지고 연대가 약화하는 시점에서 출범했다. 세월호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때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시대 배경에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 사회'를 국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2020년이 되자마자 코로나19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포용적 복지 국가와 안심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재난의 일상화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국정 성과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유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칭송받고 있다. 재난 초기부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을 잠재움으로써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확진율과 치명률을 기록했다.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높아진 국격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한층 고양됐다. 정부는 통합 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200여 명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3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산업재해·건설 현장 사망자는 964명에서 660명까지 감소했다.

소득과 고용, 건강과 주거 등 국민 생활의 기본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정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4년간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됐고 일자리도 증가했다. 특히 여성과 노인, 청년 일자리가 의미 있게 증가했다. 국가 재정 사업의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다만 현재 추세가 지속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소득을 보장하고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초연금을 증액하고 수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으며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 원 인상하는 등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지원으로 자활을 촉진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2019년 64만 개에서 2020년 74만 개로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4년간 약 7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저소득층

2020년이 되자마자 코로나19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포용적 복지 국가와 안심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국민 돌봄 부담을 줄였으며 책임 의료 기관을 확대했다. 지역별로 공공의료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 위한 다양한 정책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2018~2020년 공공임대주택을 46만 3000가구 공급했다. 또한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르신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문턱을 제거해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쪽방과 반지하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금리를 낮추는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힘을 기울였다.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상한 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교육 개선 문제도 살핀다. 아동수당을 신설해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범부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누리 과정 국가 지원을 확대해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서열 체제를 바로잡아서 교육으로 사회 이동을 진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저출생·고령화 인구 구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저성장 시대에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겹치면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확대됐으며 포용사회로 갈 길은 먼 과제가 됐다. 디지털 대전환이 전개되면서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일자리와 복지 등 사회적 과제가 대두했다. 그렇지만 문재인정부 남은 1년 동안 오래 묵은 문제를 슬기롭게 풀고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지혜를 모으고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자료: 정책브리핑

●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포용사회분과 위원)



20년 숙원사업 공공주도 모델로 '물꼬'
주민들 "빠른 사업 추진과 투명성 기대"

공공주택 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가보니

'증산4구역 공공주도 3080+사업 선도구역 선정 확정.'

5월 18일 오전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한 빌라에 도착하자 큼지막한 현수막이 입구에 붙어 있었다. 옛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증산4구역)'은 정부가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3080+ 대책)' 가운데 신규 사업 모델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차 후보지로 3월 말 선정됐다. 그로부터 불과 7주 만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2·4 대책 사업 후보지 가운데 처음으로 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 달 만에 주민 동의율 67% 훌쩍 넘겨

빌라 1층에 있는 '증산4구역 3080+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홍대 추진위원은 "4월 8일부터 동의서를 걷었는데 소유자 1735명 가운데 10%를 첫날 걷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시켰고 한 달 만인 5월 9일에 지구 지정 요건인 동의율 67%를 넘길 정도로 주민의 호응이 뜨겁다"고 전했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가까운 증산4구역은 총면적 16만 6022㎡ 규모의 부지로 지금까지 발표된 3080+ 대책 사업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건물 노후도는 89.0%이며 용도지역은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소유자가 많음에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재개발이 증산4구역 주민의 20년 숙원 사업이기 때문이다.

박홍대 추진위원은 "누수가 돼 천막으로 지붕을 씌운 집도 있고 아예 무너진 집도 있다. 곳곳에 빈집이 늘고 있다. 이 빌라도 지은 지 33년이 지났는데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집마다 천장 색깔이 다르다. 계속 뜯어고치며 겨우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장마철에는 비가 새고 하수구가 막히는 환경이라 이번엔 꼭 정비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증산4구역은 20년 동안 수차례 재개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2년 7월 단독주택재건축예정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변경되면서 조합을 설립했다.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커 알짜 재개발 사업지로 꼽혔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진척이 없어 2019년 6월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일몰제는 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혜택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1	2	3	4	5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수익을 보장합니다.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합니다.	기부채납 최소화로 여러분의 땅이 더 넓어집니다.	창의적인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합니다.	공공주도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자체 추진 시 수익률보다 10~30%p(예시) 추가 수익 보장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 120% 상향 적용 필요 시 층수 제한 완화 적용	주택법령에 따라 15% 수준에서 필요한 기반시설만 계획	건축규제를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로 도시 경관 창출 가능 ※완화 가능 사항: 일조·채광 기준,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대지안의 공지 기준, 조경 설치 의무 기준 등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특수상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1 5월 18일 오전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3080+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빌라 앞에서 박홍대 추진위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서 접수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가리키고 있다. 2 집이 무너져 공터로 방치된 터

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뒤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직후 주민들은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 9월 동의율 75.5%까지 받았지만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무산됐다.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로 2021년 초 바꿨지만 노후도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때마침 정부가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본격 사업을 앞두게 됐다.

"정부 3080+ 대책과 코드가 딱 맞아"

빌라 앞에서 만난 주민 홍태혁 씨는 "여기가 너무나 낙후돼 있고 재개발을 하려고 오랜 기간을 기다렸다. 몇 번 재개발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찬성한 이유는 빠른 진행과 정부 주도로 하니까 부조리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몇 번 재개발을 시도했다가 계속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잘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특징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1	2	3	4	5
공사비 부풀리기가 없어집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시공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책임집니다.	비리·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공공이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 공사비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통합심의 도입과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신속히 추진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민간시공사 선정권한을 가져 여러분의 자산가치를 보존합니다.	주택시장 환경,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다양한 리스크를 공공이 함께 부담합니다.	공공의 직접 시행으로 조합·시공사 등 비리가 없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투명·신속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절차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제안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구역 특정 및 개발 콘셉트 마련 ▸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 제안(검토 후 6개월 내 회신) ※비법정 절차로 생략 가능
↓	
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국토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토부(또는 지자체)에 지구지정 요청 ▸사전검토위원회 검토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필요
↓	
예정지구 지정·고시 국토부 또는 지자체	▸행위 제한 효과 발생
↓	
지구지정 확정·고시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면적1/2) 동의(기간 내 동의율 미확보 시 예정지구 해제) ▸시행자 지정, 보상 평가 기준 시점
↓	
민간시공사 선정 토지등소유자	▸사업 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사 선정
+	
부지 확보 공공기관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수용)
↓	
주택 사업 계획 수립 공공기관	▸지구 계획과 주택 건설 계획을 동시에 수립 ▸토지 이용 계획, 인구·주택 수용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지자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용도지역 변경+지구 단위 계획 변경+건축 기준 완화
↓	
착공 및 입주	▸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 분양 실시 ▸사업 제안~입주까지 4~5년 이내 완료

증산4구역 위치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은평구에 후보지가 많은데 증산4구역에서 공공주도 사업이 모범적으로 진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시도했다가 계속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잘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찬성한 이유는 빠른 진행과 정부 주도로 하니까 불합리한 부조리가 없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홍대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추구해온 게 빠른 사업 추진과 투명성이었는데 3080+ 대책과 코드가 딱 맞았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월 26일 은평구청에서 '은평구 3080+ 선도사업 후보지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조합설립과 관리처분인가 없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을 적용해 입주까지 5~6년 안에 해준다고 했다. 민간 주도로 한다면 그렇게 빠른 입주는 불가능하다. 그 밖에도 주민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 수익률을 더 높게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우리 생에 이런 좋은 조건은 다시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 사이에 반감이 없었던 건 아니다. 특히 LH가 사업 주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공아파트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민설명회에서 "시공사와 브랜드는 주민이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에 해소됐다.

비리·부풀리기 없을 공공주도 "놓치면 안 돼"

국토부와 LH 등은 증산4구역에 4139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공급 1836가구, 일반분양 1059가구, 공공자가 622가구, 공공임대 622가구 등이다. 서울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2726가구 건설을 추진했던 뉴타운 시절보다 사업 규모가 커졌다. 이 사업계획은 지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박홍대 추진위원은 "서울시와 종·용적률 상향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아 가구 수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6~7월 통과하면 11월에 구역 지정되고 2022년 상반기에는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될 것 같다. 2022년

증산4구역 배치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말이나 2023년 초부터 이주하고 2024년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입주하는 게 우리 계획이자 바람"이라고 말했다.

3080+ 대책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지연됐다. 정부는 입법이 다소 미뤄지더라도 연내 지구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는 즉시 요건을 갖춘 곳들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영향평가 등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조속히 지구로 지정하겠다"며 "증산4구역은 이미 동의율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바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계획 심의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1년 안에 지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은평구에 후보지가 많은데 증산4구역에서 공공 주도 사업이 모범적으로 진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증산4구역 주민들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는 분위기라 한마음으로 뭉치고 있다"고 전했다.

박홍대 추진위원은 다른 후보지에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조합 비리나 시공사의 부풀리기가 없을 텐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재개발은 추진 주체의 평생직장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보금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정말 사심 없이 일할 계획이라면 이 사업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권했다. ◉

글·사진 원낙연 기자

신속 인허가에 과감한 인센티브 개발이익 재투자로 부작용 완화

정부가 3차까지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38곳으로 4만 87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를 채운 곳은 8곳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8일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증산4구역에 이어 은평구 수색14구역도 지구 지정 요건인 동의율 3분의 2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에게 사업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2단계 설명회를 5월 말부터 사업구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2단계 설명회에 따라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낙후하고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을 고밀 개발해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이 개발을 주도하는 대신 ▲용도지역 1단계 종 상향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적용 ▲기부채납 최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사업 추진이다. 정부는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를 생략해 민간이라면 13년 이상 걸릴 재건축·재개발을 5년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남은 개발이익은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공공자가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성 낮은 구역 등에 재투자한다.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소유자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면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됐다.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수요가 유입되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20년 동안 근본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처럼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이 적용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며 "세입자·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올해도 전국에서 841건 본격 추진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2021년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41건을 선정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총 사업비 2948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2130억 원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50 탄소중립 등 범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돼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1년은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 사업지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해 공사비 추가 지급이나 기술 자문 등 지자체가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한다.

노후 어린이집·보건소 등 정주환경 개선

2021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841건은 용도별로 어린이집 399건(47%), 보건소 384건(46%), 의료시설 58건(7%)이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202건(24%), 비수도권 639건(76%)이다.

총 사업비 2948억 원 규모로 용도별로는 어린이집 1168억 원(40%), 보건소 1113억 원(38%), 의료시설 668억 원(23%)이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753억 원(26%), 비수도권 2195억 원(74%)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 소요량 등의 감소 효과를 거둔 경기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 광명시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그린리모델링을 마친 경기 광명 시립철산어린이집의 경우 단열 보강, 복층 창호, 전열 교환 환기 장치, 태양광 패널 등으로 건물 에너지 소비량이 88% 이상 감소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내 에너지 소비량 20% 이상은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그린리모델링이 필수"라며 "정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촉진하고 사업대상을 확대해 건축물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원낙연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피로한 눈 '이것' 먹고 풀어보자

눈 건강에 좋은 채소 세 가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가 늘어나 컴퓨터와 휴대전화, 태블릿피시 등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눈이 피로해지기 쉽다. 눈 건강에 좋은 세 가지 채소를 소개한다.

알싸한 맛이 매력인 열무



열무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적은 알칼리성 식품이며 비타민B군과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 비타민이 풍부하다.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고 칼슘과 인, 철분 등 무기질과 엽산 성분도 다량 함유돼 있어 원기 회복과 혈압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다.

혈액 산성화 방지와 식욕을 증진시키며 바이러스나 세균 저항력을 키워 감기나 감염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더불어 눈 건강을 보호해주며 전분을 분해해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좋다.

비타민A의 황제 당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캐롯(Carrot)이라 이름 붙여진 당근은 특유의 향과 주홍빛 색깔이 특징이며 다양한 요리에 이용된다. 당근은 녹황색 채소 중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가장 높다. 베타카로틴은 체내 흡수되면 비타민A로 전환되는데 특히 눈 건강에 좋다. 이외에도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당근에는 루테인과 리코펜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과 시력 형성에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 향상과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당근에는 비타민C를 산화시키는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들어 있어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 당근은 껍질을 벗겨서 사용할 수 있지만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좋다.

달큼하면서도 담백한 다채



중국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수경 재배되고 있는 다채는 양배추와 순무를 교접해 만든 채소다. 숟가락처럼 생긴 작은 잎이 차곡차곡 붙어 있는 모습이 마치 장난감 제기와 같다 해서 다채라 불린다. 잎은 광택이 나는 진녹색에 잎 가장자리가 살짝 바깥쪽으로 말려 있으며 맛은 담백하고 떫은맛이 없어 쌈 채소나 샐러드용 또는 즙으로 주로 먹는다.

다른 채소들과 달리 추위에 강해 서리를 맞으면 오히려 단맛이 증가하는 것도 다채의 특징이다. 비타민A 성분인 카로틴이 시금치 두 배일 정도로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다채를 생으로 100g 먹으면 비타민 하루 필요 섭취량의 약 80%를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A에 있는 카로틴은 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용성 비타민인 카로틴은 기름에 볶아 먹는 등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신체 흡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다채에는 수분(91.9%) 외에 탄수화물(3.6%), 단백질(2.4%), 지질 등과 인, 철분, 칼슘 등의 무기질, 항암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 등도 함유된 건강 채소로 시설 재배로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 ◉

자료: 정책브리핑

글쓰기를 잘하면 무엇이 좋은가?

글쓰기는 소통 능력의 핵심입니다.
소통 능력이 높아지면 말하기, 듣기, 대화, 토론, 인터뷰, 면접, 강의, 발표 등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 **이상록**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동아일보, 한겨레 등에서 기자로 일했고, tvN에서 책임프로듀서(CP)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었다. 〈언론분쟁 뛰어넘기〉(2011),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못 하는, 글쓰기 비법〉(2020) 등을 펴냈다.

#면접관: "자, 그럼 우리 신문사가 왜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지 말씀해보세요. 특별히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또 뭘까요?"

#지원자: "네, 저는 누구보다 기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체력도 좋고 다양한 사회경험으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도 키웠습니다. 몇몇 언론사에서 인턴기자 생활을 하면서 현장 경험을 했고 당시 현직 기자 선배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사한다면 누구보다 뛰어난 기자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입사 면접 상황입니다. 짧은 대화인데 읽어보니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원자의 답변이 아쉽네요. 면접관은 1) 신문사가 왜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지 2) 다른 언론사가 아니라 왜 이 신문사에 지원했는지 두 가지를 물었는데 지원자는 1번 질문에만 답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에서는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면접관의 질문에 모두 답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관은 자신의 질문에 지원자가 어떻게 답변하느냐를 듣고 점수를 주기 때문이죠.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만 답했다면 시작부터 100점 만점에 50점이 깎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합격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두 가지를 물었는데 누가 한 가지만 답하겠어?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듣고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일할 때 기자나 프로듀서(PD)를 뽑는 면접이나 서류전형 심사위원을 자주 했는데요. 생각보다 꽤 많은 지원자가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릅니다. 단순히 당황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서류전형에 빠지지 않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제출할 때까지 꽤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지원 회사에서 요구한 내용을 다 넣지 않

은 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 소통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능력의 핵심은 글쓰기 능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차분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의 면접 지원자는 면접관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답한 겁니다. 면접관의 질문과 소통하지 않은 채 답변한 것이죠.

그런데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글쓰기를 잘한다는 건 단순히 글쓰기 능력의 향상만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한 내용을 토대로 글을 씁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이해한 뒤 내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건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원활한 소통은 내가 할 말만 잘해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왜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대답 혹은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생각부터 말하기와 듣기, 이해하고 요약하기까지 거의 모든 외부와 소통 과정과 능력이 다 녹아 있는 정점에 글쓰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소통의 대상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면접관의 질문, 시험 문제 등이 소통 대상인 '사물'의 사례겠죠. 이렇게 글을 잘 쓰면 소통 능력이 높아집니다. 소통 능력이 높아지면 대화도 토론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면접도 잘 볼 수 있고 강의나 발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소통 능력의 핵심

기자나 PD처럼 인터뷰를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직업군에 중요한 인터뷰 능력 역시 글쓰기 능력과 정비례합니다. 누군가와 인터뷰할 때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질문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핵심을 실시간으로 요약해 머릿


게티이미지뱅크

속에서 정리한 뒤 내용에 알맞은 호응과 질문을 던져야 순조롭고 알찬 인터뷰가 이뤄지기 때문이죠. 종이나 노트북에 직접 적지 않더라도 제가 언급한 인터뷰 과정은 사실상 글쓰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요약하고 이해한 뒤 적절하게 대답하는 능력 역시 큰 틀에서 보면 글쓰기니까요.

또 하나, 글쓰기를 잘하면 누구보다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하고자 하는 말이나 메시지 등을 짧고 쉽고 명확하게 글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글을 통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글쓰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며칠씩 혹은 그 이상 걸려서 처리할 내용들을 하루나 불과 몇 시간, 더 짧게는 전화나 문자 한두 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글쓰기는 소통 능력의 핵심입니다. 소통 능력이 높아지면 말하기, 듣기, 대화, 토론, 인터뷰, 면접, 강의, 발표 등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도 글쓰기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

‘K, K, K…’ 유튜브에 휘몰아친 한류 열풍

많은 사람이 한류라 하면 K-팝이나 K-드라마를 떠올린다. 여전히 K-팝과 K-드라마가 한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2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한류 모습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듯이 2021년 한류도 시대에 맞게 새로운 모습을 띄고 있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그것이다.

2005년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시작한 유튜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룡이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미디어로 불리며 그 영향력은 기존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정도로 커졌다. 특히 유튜브와 함께 성장한 10~20대 Z세대에게 유튜브는 단순한 온라인 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 영상 미디어를 대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한류 열풍의 일등 공신 유튜브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유튜브는 그야말로 한류 열풍을 만든 일등 공신이다. 유튜브는 몇몇 국가를 제외한 나라에 공통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려 한 번에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다. 대표 사례가 한때 전 세계를 흥분시킨 유튜브 한류의 원조 가수 싸이다. 싸이는 유튜브가 만들고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유튜브로 전 세계에 전파됐고 유튜브 내에서도 전설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다른 콘텐츠에 순위를 내줬지만 4년 8개월 동안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지켰다. 게시한 지 100일 만에 5억 뷰를 돌파한 최초 동영상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 차트인 빌보드 차트에서 유튜브 조회수를 차트 집계에 반영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유튜브가 없었다면 지금의 싸이는 없을지도 모른다.

현재도 유튜브는 한류 확산에 있어 중요한 채널이다.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K-팝을 비롯한 K-콘텐츠는 유튜브가 서비스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된다. 유튜브 상위 채널에 K-콘텐츠 관련된 콘텐츠가 다수 포진해 있는 것도 비 영어권 콘텐츠로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대부분 K-팝 팬의 소통 창구는 유튜브다.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유튜브 퀸이라는 별칭을 얻고 전 세계 소녀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된 배경도 유튜브의 영향이다.

K-팝이 그간 유튜브 한류를 이끌어온 중심축이라면 새로운 유튜브 한류를 이끄는 콘텐츠는 이른바 먹방이라 불리는 음식 콘텐츠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키즈 콘텐츠, 뷰티 콘텐츠 등이다. 특히 먹방은 ‘Mukbang’이라는 한글이 그대로 국외에서 통용될 정도로 우리나라 고유의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K-푸드 인기에 큰 역할을 담당한 배경도 바로 먹방 콘텐츠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외



싸이 〈강남스타일〉



핑크퐁 〈아기 상어〉

2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한류 모습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듯이 2021년 한류도 시대에 맞게 새로운 모습을 띄고 있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그것이다.

에서 먹방을 본 다음 우리 음식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먹어보는 이른바 '한국 먹방 따라하기' 콘텐츠가 생길 정도다.

또 다른 한류를 이끄는 유튜브 콘텐츠들

키즈 콘텐츠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유튜브 보모' 역할을 한다. 핑크퐁의 '아기 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키즈 콘텐츠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영상이 큰 인기다. 언어의 장벽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린 키즈 창작자들이 영어 자막을 제공하며 국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린 것도 키즈 콘텐츠 한류에 큰 기여를 했다.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K-뷰티의 인기와 함께 뷰티 창작자들의 한류 바람도 심상치 않다. 2020년 코로나19를 뚫고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는 기존 K-팝과 K-드라마의 공도 크지만 뷰티 창작자들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업계에서는 유명 뷰티 창작자들과 협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 사례가 늘면서 광고 효과로 보자면 웬만한 한류 스타보다 낫다는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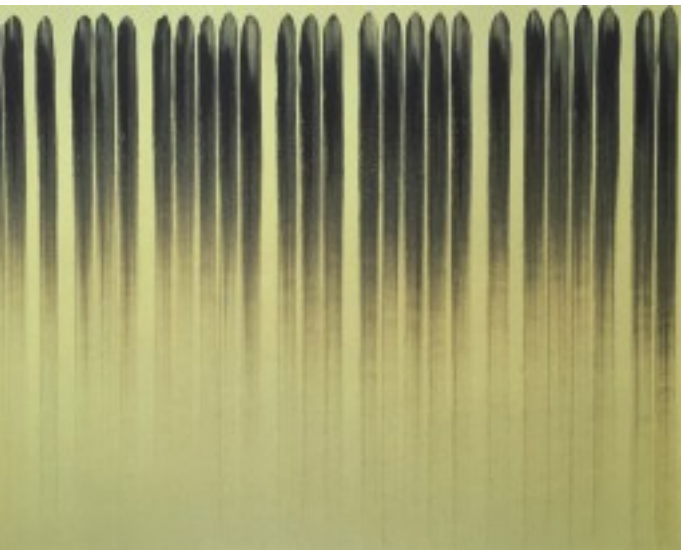
코로나19로 국가 간 인적 교류가 뜸해진 2020년 유튜브는 한류가 다시 한 번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채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많은 창작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이 작은 만큼 국외 시장 공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많은 창작자가 국외 시장을 노리기 위해 영어 자막을 다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인기 있는 창작자들은 팬들이 커뮤니티 자막 기능(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자막을 달 수 있는 유튜브 기능)으로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제공하는 등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글로벌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노출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국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많은 인프라와 자금, 시간이 필요하다. 유튜브는 모든 과정을 손쉽게 해결해준다. 유튜브는 이전의 단순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다. 국외 시장으로 진출을 원하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에 유튜브는 가장 큰 무기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 **문동열** 콘텐츠산업 칼럼니스트
일본 게이오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기업에서 방송, 게임,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해왔다. 현재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1


2

단순함에 깃든 심오한 철학적 사유

언젠가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름 이름이 알려진 화가와 미술에 문외한인 지인 몇몇이 어울린 자리였다. "제 아들이 화가가 되고 싶다는데 유명한 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화가에게 물었다. 화가는 대수롭지 않은 듯 답했다. "아들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길 원한다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대학 철학과에 보내세요! 물론 맘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과거와 달리 동시대 예술은 형식보다 내용이 더 우선한다. 재기 발랄한 손재주, 기계적으로 뛰어난 기량은 부수적 요소다. 눈에 보이는 작품의 겉모습보다 이면에 담긴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 작품을 창조하는 작가가 지닌 사유의 깊이, 즉 작품의 메시지와 의미에 더 가치를 부여한다. 그 화가는 현대예술의 이런 속성을 '철학(과)'이라는 상징으로 대답한 것이다.

어릴 적 첼로 연주로 천재 소릴 들었던 장한나. 그는 이제 첼리스트보다 마에스트로(지휘자)로 훨씬 유명하다. 현재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상임지휘자로 활약하는 장한나는 음악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철학을 전공했다. 그것도 하버드대학교에서. 첼로에서 지휘로 전향한 이유를 장한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첼로 연주는 현미경 같지만 지휘는 망원경 같아요. 나이가 들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음악뿐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됐어요."

세계적 명성을 얻는 동시대 예술인의 진면목은 바로 이런 것이다. 타고난 연주 실력보다 예술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내면의 정신성이 더 중요하다. 물론 이런 예를 일반화할 순 없지만 미술가 이우환과 그의 작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글쓰기와 철학에 남다른 관심과 재능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우환 작품을 처음 보면 열에 여덟 아홉은 황당하거나 어이없어 한다. 그저 캔버스 위에 '점(點)' 한

두 개가 찍혀 있거나 물감 묻힌 붓으로 휙~하고 '선(線)' 몇 개가 그어져 있거나 때론 넓적한 철판이나 쇠막대기 또는 큼지막한 돌멩이(혹은 바위)를 이리저리 배치하는 게 다니까.

반응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런 식이다. "이게 뭐야? 이게 작품이야? 이건 나도 하겠다!" 그런데 작품 하나 가격이 수억, 심지어 수십 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난감해하기 십상이다. 일반인 상식으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미술시장에 관한 왈가불가는 접어두고 작가 이우환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자.

1936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난 이우환은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서울사대부고를 졸업했다. 이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다. 195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에 입학했지만 우연히 인생의 갈림길에 맞닥트렸다.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어머니 심부름으로 일본에 계신 작은아버지를 병문안하기 위해 일본 땅에 발을 디딘 것이다. 정식 입국이 아닌 밀항이었다.

작은아버지 권유로 일본에 정착한 이우환은 1961년 니혼(日本)대학 철학과에 다시 입학했다. 철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미학이나 사회·사상사를 철저히 알아야 나중에 뭐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글쓰기와 철학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재능을 보인 이우환은 일본에서 미술작품보다 평론으로 먼저 주목받았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예술 개념과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그리고 일본 근대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의 이론을 연구했는데 1971년 일본어로 출판된 평론집 〈만남을 찾아서〉는 당시 일본미술계에서 필독서로 여겨졌다. 이 당시 이우환의 미술비평은 일본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향인 '모노하(物派)'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점(點)은 존재요, 산다는 것은 선(線)이다"

이우환의 영향력은 일본을 넘어 우리나라에도 전파됐다. '모노하' 작품과는 형식 면에서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 미술계 주류로 각광받는 '단색화' 회화 작품 역시 그가 주창한 미학과 일정 부분 연결돼 있다.

한국 국적인 이우환은 여전히 일본에 거주하며 작업한다.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생존하는 한국 작가다. 특히 유럽에서 명성이 높다. 2014년엔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에서 개인전이 열렸다. 프랑스 전통의 자존심인 베르사유궁전이 현대미술과 '대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세계적인 작가를 한 명씩 초대해 개인전을 열어주는 프로젝트다.



3

1 이우환, '관계항–대위법', 철봉(鐵棒), 자연석, 2004 2 이우환, '선으로부터', 캔버스에 돌가루 물감, 182×227cm, 1978(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소장)
3 이우환, '대화'(왼쪽), 캔버스에 유채, 291×218cm, 2007, '대화'(오른쪽), 캔버스에 유채, 227×182cm, 2006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애니시 카푸어 등 최고 톱스타 작가가 참여했다. 이우환은 이 전시에서 깊은 철학적 사유의 결과를 단순하지만 심오한 표현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베르사유 궁전과 완벽히 조화를 이뤘다는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만남의 미학'으로 일컬어지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우환은 이렇게 설명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점(點)이요, 산다는 것은 선(線)이다. 그러므로 나 또한 점이며 선이다. 내 예술관은 한마디로 무한에 대한 호기심과 그 탐구 과정이다. 무한은 자기로부터 출발해 세상의 다른 존재와 얽히면서 만날 때 나타난다. 나는 타자(他者)와 관계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마당에서 세계를 지각하고 싶다."

부산시립미술관에 가면 언제든지 이우환 작품을 볼 수 있다. 일본 나오시마에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이우환 미술관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생긴 이우환 개인 미술관이다. 이름하여 '이우환 공간'. 건물 전체가 그의 작품으로만 채워져 있다. ◉



● **이준희** 건국대 현대미술학과 겸임교수
미술대학을 졸업했지만 창작에서 전향해 몇 년간 큐레이터로 일했고, 미술 전문지 〈월간미술〉 기자로 입사해 편집장까지 맡아 18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저널리스트'로 불리는 것보다 여전히 아티스트에 가까운 '미술인'으로 불리기 원한다.

‘죽기 전에 나도 한 번은’
나빌레라

우리말 제목의 영화·드라마

나빌레라

〈나빌레라〉, 오랜만에 잔잔하고 느긋한 드라마 한편이 눈길을 끕니다. 70세에 발레를 시작한 한 할아버지와 그의 23세 발레 선생이 서로의 꿈을 찾아주고 지켜주며 완성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선 어떤 용기들이 필요한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처음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가진 건 제목 때문인데요. 정확한 뜻은 기억나지 않아도 학창시절 한번은 접해본 ‘나빌레라’는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에 나오는 말입니다.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이하 생략)

이 시에서 나빌레라는 ‘나비’와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ㄹ레라’가 합쳐져 ‘나비 같다’ 또는 ‘나비처럼 살포시 앉은 자세’란 의미를 지닌 순우리말입니다. 시인 조지훈이 승려의 춤사위와 의상의 움직임을 보고 반해 지었다는 이 시는 그가 읊은 한 단어 ‘나빌레라’로 그 현장의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했는데요. 드라마 역시 “죽기 전에 나도 한 번은 날아오르고 싶어서”라는 대사를 통해 드러난 할아버지의 꿈을 ‘나빌레라’라는 순우리말 제목이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순우리말로 된 드라마 제목으론 〈육룡이 나르샤〉도 있습니다. ‘나르샤’는 용비어천가 1장 구절에 나오는 말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날다’의 옛말인 ‘놀다’가 ‘날-+-으샤-+(-아)’로 활용된 것으로 보는데요. ‘나르샤’가 ‘날아오르다’라는 뜻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보다는 ‘나셔서(날으셔서)’ ‘나시니(날으시니)’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낭소리

영화 〈워낭소리〉도 순우리말 제목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할아버지와 늙은 소의 삶을 조명한 영화로 약 30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독립영화 최고 흥행작으로 사랑받았는데요. 워낭은 ‘마소의 귀에서 턱 밑으로 늘여 단 방울. 또는 마소의 턱 아래에 늘어뜨린 쇠고리’를 말하는 순우리말로, 〈워낭소리〉는 여기서 나는 소리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한 노인과 40여 년의 세월을 함께한 소의 교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라랜드〉 (N)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이처럼 순우리말 제목은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의미와 여운이 함축돼 있는데요. 최근엔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의 세계화 추세로 순우리말보다 외래어, 외국어로 된 제목의 드라마나 영화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단체에서 의미있는 공모전을 개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사회활동을 하는 '우리말가꿈이'가 진행한 '영화제목 우리말 순화 공모전'인데요. 공모 결과 ▲〈라라랜드〉는 '천사들의 도시에서 춤을' ▲〈엑시트〉는 '끝까지 달려라 초록빛 질주' ▲〈인터스텔라〉는 '별똥별이 한울(우주)에 닿을 때' ▲〈인사이드 아웃〉은 '또바기(한결같이) 내 마음 거울'이 선정됐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바꾸니 단번에 이해될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다시 한 번 느껴지는데요.

미나리

영화 〈미나리〉가 해외에서 처음 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한 점은 미나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영어 원제목도 'MINARI'여서 등장인물 이름 혹은 심오한 뜻을 담은 신조어 아니냐는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감독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먹는 채소 미나리"라고. 영화 제목을 굳이 한글로 한 이유는 받침 없이 영어로도 발음하기 쉬운 아름다운 우리말 그대로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나리〉의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에 독일 dpa통신도 "미나리는 강인함을 상징하는 한국의 전통 약초에서 제목을 따왔다"며 "미나리는 (한인 이민자) 가족이 고난 앞에서 찾아낸 끈기와 신뢰에 대한 은유"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번 수상으로 〈미나리〉는 아카데미상 시상 목록에 등재되는 최초의 한국어 제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흔한 미나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어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K-팝, K-푸드, K-컬처 등의 한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그 원동력은 한글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하며 지켜나가는 게 세계화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우리말 제목의 영화, 드라마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

백미현 기자

공감 리뷰



'윤진서의 제주에서: 벌써 그리운 제주의 여름' 칼럼을 읽고 치유의 참모습을 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공감〉 독자라면 누구나 제주 여름이라는 말만 들어도 행복하고 설렐 겁니다. 제주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없는 사람은 드물 거고요. 이번 글을 읽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한 저만의 여름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강영숙 인천 부평구 삼산동



아이들이 편식이 심해 채소를 먹지 않아서 자연스레 저도 즐겨 먹지 않았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 등 영양소가 다양해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좋고 피부 미용에 좋은 채소를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가족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먹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먹을 때 쌈으로 먹어도 좋고 국을 끓여 먹어도 금상첨화인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이 맛도 건강에도 최고죠! 덕분에 올여름 피부 걱정도 해결됐습니다.

김남숙 전주 완산구 강변로

사진 공감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과 함께 동내 뒷산에 올라 보니 진달래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잎 한 잎 따온 진달래꽃으로 화전(花煎)을 만들어보니 고운 빛깔에서 봄 향기가 느껴집니다.

박향숙 오산 세마문학로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 gonggam.korea.kr
- www.facebook.com/wegonggam
- www.instagram.com/wegonggam
- 1boon.kakao.com/weekly
-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 post.naver.com/mcst_pr
- blog.naver.com/mcst_pr
- ridibooks.com
- digital.kyobobook.co.kr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거나, 사진마을 참여마당(http://photovil.hani.co.kr/participation)에 올려도 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9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기프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민참여 공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앞장 설
제20기 자문위원을 새롭게 공모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민참여 공모제란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 열정, 그리고 활동의지가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문위원 공개모집 제도
- 모집 인원 : 1,900명
- 임기 : 2년(2021.9.1. ~ 2023.8.31.),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
- 자문위원의 역할
  -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합의 도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 활동 등

자문위원 공모에 참여하시고 싶다면

- 신청 기간 : 2021.5.31.(월) ~ 6.18.(금)
- 신청 자격 : 만18세 이상(2003.9.1일 이전 출생자) 국내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자
  ※ 응모제한 : 제19기 자문위원 및 중도 사직자
- 신청방법
  - **국민참여공모 후보자 입력사이트**(https://peace.nuac.go.kr/ccis)에 접속, 본인 인증 후 절차에 따라 작성
  - 후보자 입력사이트에서 작성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기본증명서(상세)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방문 접수 불가함)
  - PC에서만 작성 가능하며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작성 불가
  ※ 보낼 곳 : (04605)서울 중구 장충단로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남부지역과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유의 사항
  - 후보자 서류에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무효처리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8월 중)
- 문의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남부지역과(02-2250-2399, 2272)
  ※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안전부



백신접종 안내가 안으로 쏙!

접종일정부터 주의사항까지

국민비서 검색